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복수·높임
표현구조 대조

-‘-들’, ‘-시-’와 ‘-lar’ 중심으로-

제주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ABSALOMOV MIROLIM

2021년 12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수·높임
표현구조 대조 연구
-‘들’, ‘-시-’, ‘-lar’ 중심으로-

지도교수 배영환

ABSALOMOV MIROLIM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ABSALOMOV MIROLIM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 대 희 

위 원 신 우 봉 

위 원 배 영 환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1년 12월

A Contrastive Study of Korean and Uzbek
plural and honorific structures
: focusing on -‘-들’, ‘-시-’ and ‘-lar’-

Mirolim Absalomov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Hwan Ba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21.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Young-Hwan Bae, Prof. of Korean Language
.....
.....
.....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4
1.3. 선행 연구 검토	6
II. 한국어의 높임·복수 표현 방법	11
2.1. ‘-시-’의 높임 표현과 기능	11
2.2. ‘-들’의 복수 표현과 기능	17
III. 우즈베크어의 높임·복수 표현 방법	23
3.1. ‘-lar’의 높임 표현과 기능	24
3.2. ‘-lar’의 복수 표현과 기능	33
IV.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높임·복수 표현 구조 대조	41
4.1. ‘-시-’와 ‘-lar’의 대조	41
4.1.1. 주체 높임법 대조	42
4.1.2. 간접 높임법 대조	50
4.1.3. 사물 높임법 대조	51
4.1.4. 압존법 대조	54

4.2. ‘-들’과 ‘-lar’의 대조	56
4.2.1. 조사 기능 측면	57
4.2.2. 보조사 기능 측면	64
V. 결론	68

<표 목차>

<표 1> 높임 표지 ‘-lar’의 위치	25
<표 2> ‘-lar’의 소유격 조사에 결합	26
<표 3> ‘-lar’의 서유격 조사의 위치에 따라 의미	26
<표 4> 우즈베크어의 인칭 어미	27
<표 5> 1인칭 어미 활용	27
<표 6> 2인칭 어미 활용	28
<표 7> 3인칭 어미 활용	28
<표 8> 인칭 어미와 시제	28
<표 9> ‘sizlash’ 높임법	31
<표 10> 동시에 높임·복수를 의미하는 ‘-lar’	31
<표 11> 3인칭의 복수는 단수 어미 형식으로 표시된다.	32
<표 12> 3인칭의 복수·높임 표지 ‘-lar’의 활용	32
<표 13> 우즈베크어의 인칭 대명사	35
<표 14> ‘lar’의 높임 어미 활용	37
<표 15> 현재·미래 시제에 ‘-lar’의 결합	38
<표 16> 과거 시제에 ‘-lar’의 결합	38
<표 17> 부정형 인칭 어미에 ‘-lar’의 결합	39
<표 18> 명령 인칭 어미에 ‘-lar’의 결합	39
<표 19> 2인칭 어미의 복수·높임 표현	40
<표 20> ‘-lar’의 생략	42
<표 21> 높임법에서 소유격 조사의 역할	44
<표 22> ‘-lar’의 높임 기능 분석	45
<표 23> ‘-들’과 ‘-lar’의 기능 차이	45
<표 24> 2인칭 대명사의 높임 기능	46
<표 25> 복수·높임 표지의 대응 관계	49
<표 26> 단수형 문장 분류	57

<표 27> 복수형 문장 분류	58
<표 28> ‘-lar’의 복수 표현 문장 분류	58
<표 29> ‘-lar’의 높임 표현 문장 분류	60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높임’(honorific) 표현과 ‘복수’(plural) 표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형태소로 한국어 높임 표지 ‘-시-’와 복수 표지 ‘-들’을 선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 ‘-lar’를 대조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두 언어의 높임과 복수 표현에 나타나는 관련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시-’는 높임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고, ‘-들’은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 하지만 우즈베크어의 경우는 한국어의 ‘-시-’와 ‘-들’ 각각에 해당하는 형태소에 ‘-lar’ 하나만 있으며, ‘-lar’에 의해 높임의 ‘-시-’와 복수의 ‘-들’에 해당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크어의 ‘-lar’는 ‘높임’과 ‘복수’의 의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의 형태소가 각각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즈베크어의 ‘-lar’의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어 선어말어미 ‘-시-’와 복수 접사 ‘-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와 ‘-들’의 의미 기능, 그리고 특수한 용법을 정리하였다. 국립국어원의 표준 언어 예절을 통해 ‘-시-’가 표준 언어 예절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사용례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고찰하여 각각의 주체 높임, 간접 높임, 사물 높임, 압존법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복수 표지 ‘-들’은 조사와 보조사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 설명에서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즈베크어 높임·복수 표지 ‘-lar’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고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문장들을 예로 들어 높임과 복수 의미를 분석하였다. ‘-lar’의 언어학에서의 제시 순서와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과 예문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복수인지 아니면 높임인지 그리고 체언과 용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와 ‘-lar’를 표준 언어 예절에 따라 각각의 사용법을 비교하여, ‘-들’과 ‘-lar’가 조사와 보조사일 때 나타내는 의미를 대조 분석하였으며, 대조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우즈베크인 학습자와 우즈베크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오류를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높임’(honorific) 표현과 ‘복수’(plural) 표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높임과 복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형태소로 한국어 높임 표지 ‘-시-’와 복수 표지 ‘-들’을 선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 ‘-lar’를 대조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두 언어의 높임법과 복수 표현에 나타나는 관련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언어 유형론적으로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라는 공통점이 있다. 교착어의 특징은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문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접사는 그 의미 기능에 따라 어근에 결합하며, 하나의 형태소는 대체로 하나의 의미 기능을 갖게 된다. 즉 한국어의 ‘-시-’는 높임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고, ‘-들’은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 하지만 우즈베크어의 경우는 한국어의 ‘-시-’와 ‘-들’ 각각에 해당하는 형태소에 ‘-lar’ 하나만 있으며, ‘-lar’에 의해 높임의 ‘-시-’와 복수의 ‘-들’에 해당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크어의 ‘-lar’는 ‘높임’과 ‘복수’의 의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의 형태소가 각각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즈베크어의 ‘-lar’의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1~2)을 통해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1) 가. 학생이 왔다.

Talaba keldi.

나. 학생들이 왔다.

Talabalar keldi.

(2) 가. 선생님이 왔다.

O'qituvchi keldi.

나. 선생님들이 왔다.

O'qituvchilar keldi.

다. 선생님이 오셨다.

O'qituvchim keldilar.

라. 선생님께서 오셨다.

O'qituvchimlar keldilar.

마. 선생님들께서 오셨다.

O'qituvchilarim kelishdilar.

위의 예문 (1~2)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주체 높임과 복수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1)은 높임의 대상이 아닌 학생을 예로 든 것인데, (1, 나) 한국어의 ‘학생들에’서 복수의 의미 ‘-들’에 해당하는 우즈베크어가 ‘-lar’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는 주체가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을 예를 들어 두 언어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2, 나)에서 ‘선생님들’의 ‘-들’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 역시 ‘-lar’이다. (2, 다)의 ‘오셨다’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는 ‘keldilar’인데, ‘keldilar’은 ‘kel-(어간)+-di(시제)+-lar(높임)’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이때 ‘-lar’은 한국어의 ‘-시-’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2, 라)에서 한국어 “선생님께서 오셨다”라는 문장은 우즈베크어로는 “O'qituvchimlar keldilar.”와 같이 옮길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높임의 의미를 갖는 ‘-께서’와 ‘-시-’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 우즈베크어 역시 조사 높임의 ‘-lar’와 어미 부분 높임의 ‘-lar’가 같이 두 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한 문장 안에서 한국어와 달리 우즈베크어의 ‘-lar’는 두 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2, 마)의 한국어 “선생님들께서 오셨다.”라는 문장에서는 복수의 ‘-들’과 조사 높임 ‘-께서’, 어미 높임 ‘-시-’ 등의 세 종류의 형태소가 나타나지만, 우즈베크어에서는 ‘-lar’가 두 개밖에 오지 않는다. 이 경우 한국어 ‘선생님들께서’에 해당하는 우즈베크어 ‘O'qituvchilarim’의 ‘-lar’의 의미는 복수만을 나타내며 높임의

의미는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우즈베크어 ‘-lar’은 한국어의 ‘께서’, ‘-시-’, ‘-들’과 같이 세 개의 형태소에 대응하지만 한 문장에서 2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¹⁾

이상과 같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높임 표현과 복수 표현은 그것을 담당하는 형태소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제 실현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우즈베크어의 ‘-lar’는 한국어의 높임 표현의 ‘-시-’와 복수 표현 ‘-들’에 대응되지만, 실제 실현 양상은 문장에 따라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즉, 한국어의 복수 표지 ‘-들’과 높임 표지 ‘-시-’가 개념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즈베크어의 ‘-lar’는 복수도 높임도 표현한다.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한국어 ‘-들’과 ‘-시-’와 우즈베크어 ‘-lar’의 관계

		명사	서술어
-lar	=	[+P1] , [+H1]	[+P2] , [+H2] ²⁾
-들	=	[+P1] , [-H1]	[-P2] , [-H2]
-시-	=	[-P1] , [-H1]	[-P2] , [+H2]
께서	=	[-P1] , [+H1]	[-P2] , [-H2]

한편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높임법과 복수 표지의 차이점으로 인해 우즈베크어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습득할 때나 반대로 한국인 우즈베크어 학습자가 우즈베크어를 습득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어의 ‘-시-’는 주체높임법을 나타낼 뿐 아니라 간접 존대나 압존법은 물론 최근에는 사물 높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높임법이 발달된 한국어와 달리 우즈베크어는 높임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1) 높임을 좀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 ‘께서’를 조사 높임, ‘-시-’를 어미 높임이라고 부르고, ‘-들’은 복수 표지로 부르기로 한다.
 2) 본 연구에서는 명사에 결합하는 복수(plural)의 조사를 [P1], 서술어에 결합하는 복수(plural)어미를 [P2], 명사에 결합하는 높임(honorific)의 조사를 [H1], 서술어에 결합하는 높임(honorific)어미를 [H2]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어 높임 표현의 ‘-시-’와 우즈베크어 ‘-lar’의 차이점은 우즈베크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더욱 습득하기 어려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높임의 표지 ‘-시-’와 우즈베크어의 ‘-lar’, 그리고 한국어의 복수 표지 ‘-들’과 우즈베크어의 ‘-lar’을 대조하여 두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우즈베크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습득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언어 연구는 통시적과 공시적인 연구로 나뉜다. 두 개 또는 세 개의 언어를 대상으로 둔 연구에는 ‘대조언어학’과 ‘비교언어학’이 있으며 ‘비교언어학’은 언어 간의 친밀함을 확인하는 언어학이다. 공시적인 연구에서 공통점을 밝히려고 시도하는 연구를 ‘비교언어학(comparative linguistics)’이라고 하며, 반대로 차이점에 밝히는 연구 분야를 ‘대조언어학’(contrastive linguistics)이라고 한다.

‘언어교육이론’의 대조 분석 이론은 구조주의와 행동 심리학을 기반으로 외국어를 배울 때 학생들이 모국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근거한 이론이다. 즉, 음운, 어휘 및 문법과 같은 언어의 모든 요소가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조 분석은 언어 교육에 적용되는 이론이다. 대조 분석에 대한 연구는 주로 두 개 이상의 다른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설명에 중점을 둔다.³⁾

이러한 목적의 대조분석은 학습자에 불완전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대조분석은 언어 요소 학습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분류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언어 교육 자료의 개발 및 언어 평가와 같은 효과적인 제2언어 교육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높임·복수 표지에 관한 연구 사례가 없었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높임 표지 ‘-시-’와 복수 표지 ‘-들’에 대한 대력적인 연구 흐름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우즈베크어의 높임·복수 표지 ‘-lar’에 대한 논의

3) 허용·김선정(2018), 『대조언어학』, 소통.

를 살펴보고 ‘-lar’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로 한다.

우즈베크어의 높임·복수 표지 ‘-lar’와 한국어의 높임 표지 ‘-시-’, 복수 표지 ‘-들’은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문법 표지보다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우즈베크인, 또한 우즈베크어를 학습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혹은 말뭉치 자료 등에 근거하지 않고, 두 나라의 문법적 개념에 따라 높임·복수 표지를 대조하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에 높임 표지 실현 형식인 선어말어미 ‘-시-’ 복수 표지 ‘-들’과 우즈베크어의 높임·복수 표지 ‘-lar’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대조 분석 결과를 통해 학습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한국어 높임 표지 ‘-시-’에 대해 전반적인 이론을 소개한 후 본 연구의 대상인 높임 표지 ‘-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높임 표지 사용법에 대한 논의는 국립국어원의 표준 언어 예절에 따라 네 가지 즉 주체높임, 간접높임, 사물 높임, 압존법 등으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복수 표지 ‘-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조사와 보조사일 때의 활용법을 알아본다.

3장에서는 우즈베크어의 복수·높임 표지 ‘-lar’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lar’의 높임 표현 의미와 기능 또한 복수 표현 의미와 기능으로 나누어 개념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먼저 ‘-시-’와 ‘-lar’을 표준 언어 예절에 따라 주체높임, 간접높임, 사물 높임, 압존법 측면에서 대조하며, 다음으로 ‘-들’과 ‘-lar’을 조사와 보조사로 사용될 때 나타내는 의미를 대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두 가지 대조 결과를 통해 높임 표지 ‘-시-’와 ‘-lar’, 복수 표지 ‘-들’과 ‘-lar’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1.3. 선행 연구 검토

1.3.1. 한국어의 높임 표지 ‘-시-’에 대한 연구

높임 표지 ‘-시-’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초기 논의는 주로 선어말어미 ‘-시-’의 문법적 의미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는 문장에서 서술어와 주체(대부분의 주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통사론적 차원’에 대한 연구였다. 통사적 특징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승녕(1964), 박양규(1975), 유동석(1993)이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높임 표지 ‘-시-’를 호응관계로 언급하였다. 호응관계란 선어말어미 ‘-시-’를 굴절어의 성, 수, 격, 시제 표시처럼 문장 내의 주요 체언과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연결 고리로 인정하고 있다.

목정수(2013:64)는 “국어문법론의 논의 구조와 ‘-시-’로 접근이 가능한지 재고해보고 싶다. 또한 ‘-시-’는 화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문법적 요소로 주어 대신에 그 요소를 존대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높임의 표현은 통사론적 차원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는 높임의 표현이 통사론 차원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규범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의 비규범적 용법을 사용하여 높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말의 수준을 넘어선 말의 요소에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분야의 연구로는 임동훈(2000), 박석준(2004), 이정복(2010), 이래호(2012) 등이 있다.

임동훈(2000:94)은 화자와 사회적 위계적 관계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참고 기능으로 ‘-시-’의 사용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임동훈(2000)의 ‘사회적 지시’ 개념은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라 화자와 인간의 위계를 나타내는 표지로서의 의미적 기능만을 포함하고, 화용 표지로 ‘-시-’를 포괄하는 완전한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어, ‘너나 잘하세요.’와 같은 문장에서 ‘-시-’는 화용 표지로 사용된 것이긴 하지만 화용 표지 중에서도 청자 존대의 사회적 지시소로 사용되지 않고, “상황 또는 주어에 관한 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박석준(200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는 주체에 대한 존대를 의미적으로 표현하고 문장의 주어와 통사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주어 높임 표지로 정의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시-’는 예외적인 용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

시-'의 비문법적 용법에 관심을 가졌다. 높임 표지 '-시-'가 비문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청자에 대한 존대와 초점을 맞추는 사람의 존대와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을 밝혔다.

이정복(2010)은 '-시-'의 폭넓은 사용을 언어의 구조적 관점과 전략적 용법을 배경으로 상황의 청자나 주체를 높이는 기능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는 담화의 차원을 넘어 화자와 청자 또는 화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상업적 대화에서는 '수혜자 공손 전략'의 면에서 고객을 최대한 공손하게 존대하기 위해 '-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의 기능 확장과 변화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체 높임 형태소가 청자 높임 기능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래호(2012)는 '-시-'의 주어는 문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뿐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청자'로서도 존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자 존대의 '-시-'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 청자가 화자보다 낮을 때에도 충분히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문장의 주체와 청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나타나며 주로 화자와 청자가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현장에서만 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자가 하위자일 경우에 '-시-'를 쓰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예우를 나타내는 것이며 '화행이론'의 '발화 수력'을 높이는 기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임동훈(2000), 박석준(2004), 이정복(2010), 이래호(2012) 등의 고찰은 주어·서술어의 관계에 입각해서 언어의 실제 사용 측면을 간과하였던 규범적 정의로부터 언어 사용에서 발생하는 '-시-'의 여러 문제를 유연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다각적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3.2. 한국어의 복수 표지 '-들'에 대한 연구

이남순(1982)은 명사 자체로는 복수형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복수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이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들'은 개체 집합적인 기능을 가지며, 이는 명사 이외의 성분 결합에도 마찬가지로라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명사에 결합하는 ‘-들’이 그 직결된 명사에 대해 기능하는 것과 달리, 다른 성분에 결합하는 ‘-들’은 문장의 주체와 관련해 기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동주(2000)는 부사나 어미 등에 결합하는 ‘-들’을 ‘-들2’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특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특성을 근거로, ‘-들2’의 삽입이 담화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며, 상황의 참여자들에 대한 개별적 서술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상대방의 관심을 환기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백미현(2002)은 유표형과 무표형의 복수 개념에서 드러나는 의미 차이를 지적하며 각각에 대해 ‘집단적(collective) 복수’와 ‘분산적(distributive) 복수’로 명명했다. 아울러 한정적 명사구의 복수 개념은 분산적 해석만이 가능하다는 점과 유정성이 높을수록 ‘들’ 결합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명사 이외의 성분에 결합하는 ‘들’을 ‘간접 복수 의미’라 부르며, 이러한 ‘들’의 출현 현상을 복수 주어가 생략되어도 복수성이라는 의미 속성이 다른 성분에 복사되어 보존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최미경(2004)은 복수 표지 ‘들’의 범주에 대한 견해만을 제시하고 있다. ‘들’에 대해 흔히 논의되는 의존명사, 접미사, 보조사의 성격을 살펴 각 범주에 ‘들’이 포함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들’을 보조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들’이 일반 보조사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 견해가 온전치 못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전영철(2007)은 앞선 전영철(2004)에서 제기된 의문을 살펴 이를 보완하고, 이후 체언에 결합하는 ‘-들’과 부사나 어미에 결합하는 ‘-들’을 ‘직접 복수 표지’와 ‘간접 복수 표지’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를 살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둘은 배분성 부여라는 동일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며, 이 배분성은 궁극적으로 임흥빈(2000)이 제시한 사건의 복수성 내지는 배분성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강범모(2007)는 집단적 술어나 배분적 술어에 모두 ‘-들’이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무표 복수형과 ‘-들’ 복수형이 집단성과 배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들’의 개별성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배분성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들’의 개별성은 복수성 자체와 다르지 않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화용론적 관점에서 무표 복수형에 비해 ‘들’ 복수형이 더 정보적

이라는 것으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들’ 복수형에는 그 개별성(복수성)이 유표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표형과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강범모(2008)는 강범모(2007)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전영철(2007)과 노은주(2008)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이전의 논지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은주(2008)는 명사가 다른 요소의 도움 없이 복수를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학생이 시위를 한다.’에서 ‘학생’은 단수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들’이 결합해 ‘학생들’이라고 하거나 수량 표현을 첨가해 ‘많은 학생’과 같이 표현해야지만 복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도 ‘많은 학생’이라는 구 전체에서 복수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하며, 피수식어인 ‘학생’ 자체에는 복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3.3. 우즈베크어의 높임·복수 표지 ‘-lar’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우즈베크 언어학에서 존대의 의미는 별도의 독립적인 범주로 연구되지 않았다. A. Gulomov(1944), Sh. Rakhmatullaev(1986)를 포함한 일부 언어학자들은 일부 형태학적 단위, 특히 복수형 접미사의 높임 측면에 대해 설명하였다.

F.Abdullaev(1961), K. Nazarov(1963) 등 학자들은 존경의 의미가 소유 접사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A.Hojiev(1974), S.Usmanov(1963), Yo.Tojiev(1981), R.Ikramova(1985) 등 학자들은 존경의 의미를 ‘양식 형식’, ‘주관적 평가 형식’, ‘감소 수단’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여 존경을 표현하는 형태학적 수단은 다른 범주의 수단과 혼합하여 연구되었다.

G. Zikrillaev(1994)는 용언 내에서 인칭·숫자의 범주에 연결하여 높임법에 대해서 연구했다. 높임 표현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사회적 요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우즈베크 언어학에서는 높임의 의미를 하나의 범주, 즉 범주를 생성하는 의미로 간주하고 있다. G. Zikrillaev(1994)는 동사에 고유한 범주로 존대를 처음 연구하고 그 의미 기능적 특징, 적용 및 구성을 분석했다. G. Zikrillaev(1994) “II와 III 인칭에서 주어의 의사소통 역할과 양을 나타내는 조사는 높임의 의미를 표현하는 역할도 한다고 언급한다. 지금까지는 높임의 범주가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칭 조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G. Zikrillaev(1994)는 인칭은 동사의 수 범주에서만 높임의 의미에 대한 연구를 했다.

H. Hojjeva(2000)는 의미론적 영역의 이론에 기초하여 존대의 의미에 접근하였으며, 일반적인 측면 중 일부에 초점을 맞췄다. H. Hojjeva(2000)에 따르면 높임 표현은 품위의 관계, 마음에 가까운 관계를 나타낸다. ‘-lar’는 서로의 소중한 가치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요구한다. 높임을 표현하고 소유 어미를 취하고 독방 참조의 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대화에서 관찰된다고 언급했다.

A. Gulomov(1944)는 우즈베크어에서 존대의 의미에 대해 최초로 연구한 학자로 명사의 복수형 접미사로 존대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존대의 의미가 소유 접사를 포함한 특정 형태적 수단을 통해 표현될 수 있음을 논의에서 지적했다.

Sh. Rahmatullaev(1973)는 우즈베크 언어학에서 ‘존중의 형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존경을 나타내는 접미사 ‘-lar’이 복수형 ‘-lar’의 접사와 다르다고 설명을 했다. Sh.Rahmatullaev(1973)에 따르면 ‘-lar’은 동음이의어 형용사로 간주되지만, 동음이의어는 형용사의 일반성(즉, 형태적 의미)이 아니라 이들 사이의 문법적 차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즈베크 언어학에서 복수의 표현은 명사의 수적 범주와 동사의 인칭·수적 범주의 이름으로 특별히 연구되었으며, 이 범주는 원래 A. Gulomov(1944)에 의해 개발되었다. F.Safarov(2004)는 연구에서 복수로서의 우즈베크어의 복수 표현 문제에 접근한다. 문법, 어휘, 구문, 음성 및 비인간의 수단이 함께 분석된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량적 현장 도구의 구조, 내용, 기능 및 응용을 연구하는 것이다.

II. 한국어의 높임·복수 표현 방법

2.1. ‘-시-’의 높임 표현과 기능

본 절에서는 ‘-시-’에 관한 선행 논의를 검토하여 ‘-시-’의 본질적 의미 기능과 쓰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높임법의 발달은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 중 하나이다. 높임 표지는 의사소통 참가자 간의 사회적, 심리적 관계를 나타내며 청자의 행동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반영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언어 예절(2011)에서는 ‘-시-’를 사용 양상에 따라 주체높임법, 간접 높임법, 사물 높임법, 압존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이 분류들 가운데 한국어의 주체높임법 양상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2.1.1 주체 높임법

주체높임법이란 말하는 이가 문장 속의 주체를 높이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대표적으로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주체높임법은 개념에서부터 ‘-시-’의 의미, 기능, 역할, 대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사전에서조차 선어말어미 ‘-시-’의 개념을 정의할 때 사전 편찬자의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사전에 있는 개념을 통합해보면 선어말어미 ‘-시-’는 용언의 어간이나 ‘이다’에 결합하여 주체를 ‘높임’ 하거나 주체가 상위자임을 드러내는데, 이때 어간이 모음이나 자음 ‘ㄹ’로 끝나면 ‘-시-’가 결합 되고,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면 이형태인 ‘-으시-’가 결합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높임

의 대상이 되는 인물과 관련된 신체의 일부 또는 소유물, 기타 일이 주체가 될 때는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 되어 높임의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높임의 기능을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이때 주체가 무엇인지 혹은 선어말어미 ‘-시-’가 존대의 기능을 하는지가 선어말어미 ‘-시-’의 주요 논란 점이 된다. 선어말어미 ‘-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주체 높임법 선어말어미 ‘-시-’의 주체와 존대 기능에 대한 여러 의견을 살펴보고 이 견해들의 핵심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⁴⁾

개체가 단순히 서술의 대상이 되는 데 머물지 않고, 서술 행위를 통제하거나 서술 행위에 의해 규정될 때 흔히 이를 주체라 한다. 일반적으로 문장 구조에서 주체는 주어로 실현되나 주어의 자체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주체높임법이라 할 때는 통사론에 국한되지 않으며 판단 행위에 대한 언어 사용자들의 인식 내용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관습화되어 통사론에 반영되는지, 나아가 통사론에 반영된 관습화된 내용이 어떻게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 이용되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⁵⁾

‘-시-’의 유무에 따라 동일한 상황을 언급하는 문장에서도 화자의 심리적 상태와 듣는 사람을 존대하려는 의도가 달라지고, 말의 의미도 변화된다. 따라서 ‘-시-’의 용법은 문장에서 서술어와 주체(주로 주어)의 관계를 나타내면서도 화자의 부드러운 태도와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적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체높임법은, 주체를 주어의 행위 주체로 이해하고 ‘-시-’는 이러한 주체에 대한 화자의 높임 의향을 표시하는 문법 형식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 생산의 심리학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임동훈(2000)은 ‘-시-’에 대해 주체와 화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의미 표지로서의 ‘-시-’를 증명하고자 하였

4) ‘-시-’에 의한 높임법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박석준(2001:41~42)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시-’에 관한 첫 번째 쟁점은 이것이 과연 본질적으로 ‘존대(높임)’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시-’가 ‘존대’와 관련되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와 기능은 ‘존대’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보는가 하는 점이다. ‘-시-’의 의미와 기능을 어떤 대상에 대한 ‘존대’로 보는 ‘존대설’과 ‘-시-’의 기능을 본질적으로는 ‘존대’가 아닌 것으로 보는 ‘호응·일치설’, ‘경험절차설’, ‘사회적 지시소설’ 등이 구별된다. ‘-시-’에 대한 두 번째 쟁점은, ‘-시-’가 문장의 특정한 성분과 관련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존대설’과 ‘호응·일치설’은 ‘-시-’가 문장의 특정 성분, 그 중에서도 특히 주어와 관련된다는 입장인데 비하여, ‘경험절차설’과 ‘사회적 지시소설’은 특정성분과의 관련을 부정한다.”
 5) 임동훈,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 제32회(2005) 국어학회 공동토론회 발표 논문, p.290.

다. 그 외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시-’의 의미와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시-’는 문법적 표지로서 주체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높이는 등 화용적 표지로도 기능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석준(2004)은 “‘-시-’는 의미적으로는 대상 인물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고 통사적으로는 문장의 주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체 존대법 어미로 기술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시-’의 예외적인 사용이 많이 보인다.”라고 지적하면서 ‘-시-’의 문법 외적 사용에 주목하고 있다. 규범적으로 사용되는 ‘-시-’에 대해서는 ‘-시-’를 쓸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조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비규범적으로 사용되는 ‘-시-’에 대해서는 ‘사용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4) 가. 형. 어머니 오셨어.

나. 형. 어머니 왔어.

박석준(2004:206)은 위의 (4, 가)에 대해 규범적으로 ‘-시-’가 사용된 것이며, (4, 나)에 대해서는 사회적 조건에서는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나, 화자가 사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시-’를 생략한 경우로 바르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시-’는 청자의 ‘의도와 의향’을 표시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어의 존대법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아 노출과 관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법 외적 ‘-시-’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5)의 예문을 들고 있다.⁶⁾

(5) 가. 그 양복 비싸시지요?

나. 실례지만 지금 몇 시쯤 되셨어요?

다. 학교에는 형님이 있으시니(/계시니), 잘 돌보아 주시겠지.

라.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시네.

마. 고생하셨네. 선친께서 살아 계셨다면 이 감격을 나누는 것인데.

박석준(2004:211-214)은 (5가, 나)의 ‘-시-’ 사용은 ‘청자 존대적 용법’으로, (5,

6) (4)의 예문은 모두 박석준(2004:211-214)에 제시된 예문(4,5)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다)는 ‘있으시다’와 ‘계시다’의 존대 의미의 차이로, (5, 라)는 초점 인물에 따른 ‘-시-’의 사용과 관련된 예로 들면서 이들 예문은 비문법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 라)처럼 화자의 존대 의향이 부여된 주체라도 서술어에 ‘-시-’가 실현되기 힘든 경우가 있는 반면에, (5, 마)처럼 주체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서술어에 ‘-시-’가 실현된 경우가 있어 위의 이론은 그 설명력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 것 같다.

2.1.2. 간접 높임법

사전과 문법 교과서에서는 ‘주체’의 개념을 ‘주어’ 또는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 (6) 가. (선생님은) 댁이 어디십니까?
 나. 할아버지는 수염이 많으시다.

위의 (6)과 같은 용례는 서술어의 직접 주어가 존대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허웅(1962), 허웅(1995), 남기심·고영근(1993)은 ‘간접 존대’의 개념을 사용하여 ‘-시-’의 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세 한국어 사전』과 『조선말 대사전』에서도 이 ‘간접 존대’의 개념을 가져와 사용하고 있는데 존대 대상(인물)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 생활에 필수적인 사물 등이 간접 존대의 방법으로 ‘-시-’를 동반한다고 보고 있다.

성기철(1970), 서정수(1972)는 ‘-시-’가 일차적으로는 존대의 대상이 아닌 주어를 존대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상위 주어를 존대하는 효과를 얻는다고 본다. 이것은 존대의 일치가 일차적으로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결과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⁷⁾

하지만 ‘간접 존대’로 설명할 경우, ‘-시-’를 취하는 명사의 범위를 정확하게 범주화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7)성기철 지음(2007),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 교육>, 글누림 출판사, p.292.

(7) 가. *우리 선생님은 아들이 참 똑똑하시다.

나. *아버지 손은 어느 것이십니까?

다. 큰아버지께서 병환이 나셨다.

위의 (7)의 예문을 통해 박석준(2004)은 ‘간접 존대’가 가능한 지 여부는 전체 주어와 직접 주어의 긴밀한 의미 관계보다는 문장의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시-’를 취하는 명사의 범위를 범주화할 수 있다 해도 (7, 다)의 경우 서술어의 직접 주체(주어)인 ‘병환’을 간접 존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간접높임’은 두 명사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 때문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유형의 용례들은 대부분 주격 중출 구문의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⁸⁾

2.1.3. 사물 높임법

국립국어원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생활의 필수적 조건이 되는 사물, 개인적 소유물 등 주체와 관련된 사물’, 혹은 ‘상대의 신체, 성품, 심리, 행위, 소지품과 같이, 상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들’을 높일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8) 가'. (선생님은) 그 양복(이) 비싸시지요?

나'. *실례지만 (선생님의 시계가) 몇 시쯤 되셨어요?

(8가', 나')와 같은 문장은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더라도 ‘-시-’를 문법 표지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 따라서 ‘칭자 존대’ 용법으로 문법 외적 ‘-시-’

8) 박석준(2004)은 주격 중출 구문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고찰하면 이들 문장의 구조를 서술절을 가진 복문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럼으로써 주격 중출 구문에서의 ‘-시-’의 실현 여부도 주어와 관련되며, ‘-시-’의 사용 여부를 문장의 ‘주어’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본다.

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게 여겨진다. 이래호(2012:149)에서 제시된 예문인 (9)는 ‘-시-’가 문장에 등장하지 않는 개체에 대한 존경을 의미할 때는 주체 높임의 의미가 아닐 수도 있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예이다.

(9) 가. 갈비탕이 누구시죠?

나. 집 앞까지 배달되십니다.

(9가, 나)는 존대 대상이 문장에 존재하지 않아 서술어와 직접 주체로 연관되지는 않더라도 문장의 상황과 연관된 ‘손님’과의 연관성이 매우 깊다. 이러한 해석은 임동훈(2000:9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문제의 사태가 화자가 상위자로 지시한 개체에 관여적인 것으로 인식되면 ‘-시-’가 예외 없이 결합 된다”라는 ‘사태’에 관여하는 ‘개체’를 높이기 위한 ‘-시-’의 쓰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⁹⁾ 이러한 ‘-시-’의 쓰임은 화자와 사회적 위계 관계로 연결된 개체에 대한 지시적 기능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임동훈(2000)은 ‘-시-’의 주된 의미와 기능을 ‘사회적 지시’로 명명한다. 그러나 임동훈의 ‘사회적 지시소’ 개념은 화자와 사태에 관련된 개체 간의 위계를 지시하는 표지로서의 의미 기능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화용 표지로서의 ‘-시-’를 포괄하는 완전한 개념은 아니다.

2.1.4. 압존법

압존법은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 그 공대를 줄이는 어법이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라는 것 등이다.

한국어의 높임법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임법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한국어 높임법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

9) 임동훈(2000:94)에서는 개체와 사태의 ‘관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각각은 ‘사태가 개체의 성질이나 상태를 기술하여 사태의 내용이 개체를 규정하는 경우’, ‘사태가 개체의 행위를 기술하여 그 행위의 통제력이 개체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태가 개체가 높인 상황의 한 측면을 기술하여 그것이 개체에게 관계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나가 ‘압존법’이다. 이는 ‘압존법’은 높여야 할 인물을 상황에 따라 높이지 않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표준 화법 해설’, ‘표준언어 예절’ 등 정부 간행물들은 압존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법 혹은 적용이 임의적인 표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중등 교과서에서는 압존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간행물의 설명과 교과서의 기술 태도는 일반 언중의 언어 의식 및 언어생활 등에서 서로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즉 가정, 학교, 군대 그리고 일부 기업 환경에서는 압존법 사용을 당연시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인해 압존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다.¹⁰⁾

‘부모를 조부모께 말할 때는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처럼 부모에 대해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 언어 예절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전통도 변하여 부모보다 윗분에게도 부모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현실을 인정하여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 등과 같이 부모를 부모의 윗사람에게 높여 말할 수도 있다.¹¹⁾

윗사람 앞에서 그 사람보다 낮은 윗사람을 낮추는 것이 가족 간이나 사제 간처럼 사적인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다. 따라서 직장에서 윗사람을 그보다 윗사람에게 지칭하는 경우, ‘총무과장님께서’는 곤란하여도, ‘총무과장님이’라고 하고 주체를 높이는 ‘-시-’를 넣어 ‘총무과장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처럼 높여 말하는 것이 언어 예절에 맞다.¹²⁾

2.2. ‘-들’의 복수 표현과 기능

한국어에서 복수 표지 ‘-들’의 문법적 기능과 의미론적 용법을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들’은 조사로서 ‘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10) 이정택(2016),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1) 『표준 언어 예절』, 국립국어원, p.154.

12) 『표준 언어 예절』, 국립국어원, pp.158-159.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문장의 끝 등의 뒤에 붙인다. 또는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정의하고 있다.¹³⁾

(10) 가. 여러분(들)! 너무(들) 빨리(들) 가지지(들) 마시고(들)
같이(들) 갑시다(들).

위의 (10) 문장에 표현된 복수 표지는 다른 요소, 즉 명사뿐만 아니라 접미사, 조사, 어미, 구, 부사 등 문장과도 결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들’이 결합된 모든 문장은 복수 의미를 나타낸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복수 표지 ‘-들’의 개념은 조사와 보조사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복수형을 의미하는 복수형 표지 ‘들’의 의미를 사용 양상에 따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2.1. 명사에 결합

우선 복수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명사와 결합할 경우이다. 그러나 ‘-들’을 붙이지 않아도 명사에 복수 의미가 내포된 경우가 있다.

다음의 (11) 예를 살펴보면,

(11) 가. 손님이 간다.
나. 손님들이 간다.
(12) 가. 많은 손님이 간다.
나. 많은 손님들이 간다.

(11, 가)는 ‘-들’이 실현되지 않는 문장이다. 이런 경우 ‘손님’은 단수 또는 복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반면, (11, 나)는 ‘-들’이 결합 되어 복수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낸다. 즉 (11, 가)는 ‘-들’이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의 의미로 사용

13) 『표준국어대사전』, 국립 국어연구원(1999) 참조.

될 수 있어 이 경우의 ‘-들’은 잉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2)의 경우는 ‘-들’의 유무에 상관없이 (12)의 예문들은 복수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2)에서는 형용사 ‘많은’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복수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모든 문장에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3) 가. 선생님이 강의를 한다.

나. 선생님들이 강의를 한다.

(14) 가. *학생이 각자 숙제를 했다.

나. 학생들이 각자 숙제를 했다.

위의 (13)과 (14)를 보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13, 가)는 단수와 복수 (12, 가)와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반면에, (13, 나)는 확실한 복수의 의미를 갖는다. 비교를 위해 예문 (14)를 보면, (14, 가)는 어색한 문장이지만, (14, 나)는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이 경우 ‘-들’은 복수 표지를 잉여적으로 보지 않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에서 ‘개인화 및 집합화’와 같은 용어가 설정되어 있으며 ‘-들’에는 많은 의미가 나타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예문 (12)~(14)에서 명사 자체가 복수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나, ‘-들’을 붙일 때 더 정확하고 확실한 복수의 의미가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수 표지는 명사와 결합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사나 조사, 어미, 구 및 문장과 결합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논의가 모두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2.2. 부사에 결합

부사어는 문법에서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수식어의 하나로,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한국어의 복수 표지 ‘-들’은 부사와 결합할 수 있다.

(15) 가. 많이들 먹었습니까?

나. 빨리들 오세요. 다. 왜들 이려고 있습니까.

(16) 가. 많이 먹었습니까?

나. 빨리 오세요. 다. 왜 이려고 있습니까.

위의 (15)는 부사와 복수 표지 ‘-들’이 결합한 문장이고 모두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문제는 (16)의 문장이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다. 즉, ‘-들’은 ‘많이’, ‘빨리’ 또는 ‘왜’의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들’이 실제로 복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15가, 나)에서 ‘-들’이 제거된 (16)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16가, 나)는 모두 단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15)에서 복수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표지 ‘-들’이 결합된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형강(2005)은 ‘-들’이 직접 결합된 복수의 요소가 아니라 관련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2.2.3. 어미에 결합

연결 어미는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미이다. 연결 어미에는 ‘-게’, ‘-고’, ‘-(으)며’, ‘-(으)면’, ‘-(으)니’, ‘-아/어’, ‘-지’ 따위가 있다. 복수 표지 ‘-들’은 아래의 예문 (17), (18)과 같이 연결 어미에도 결합 가능하다.

(17) 가. 밥은 먹고들 다니니?

나. 그 소식을 듣고 좋아들 하세요.

다. 그 가방을 가지고들 다니더라.

(18) 가. 밥은 먹고 다니니?

나.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하세요.

다. 그 가방을 가지고 다니더라.

위의 (17)은 복수 표지 ‘-들’이 연결 어미와 결합한 문장이고, (18)은 (17)의 문

장에서 ‘-들’이 제거된 문장이다. 이 경우 (17)은 복수를 의미하지만, (18)은 단수로 해석될 수 있다. (17) 문장의 ‘먹고들/ 좋아들/ 가지고들’에서 행위의 주체가 복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의미 ‘-들’의 표현은 복수 표지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2.4. 조사에 결합

조사는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이다. 크게 격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로 나눈다. 아래의 (19)는 복수 표지 ‘-들’이 조사와 결합한 예문들이다.

(19) 가. 수업이 끝나자 집으로들 갔다.

나. 집에서들 연습을 했다.

다. 여기서부터들 시작하세요.

(20) 가. 수업이 끝나자 집으로 갔다.

나. 집에서 연습을 했다.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19)의 문장은 조사와 결합된 복수 표지 ‘-들’의 실현을 보여주고 있고, (20)은 (19)에서 ‘-들’을 제거한 것이다. (19) 문장의 경우 의미를 살펴보면 복수를 의미하지만, (20)은 주어가 실현되지 않으면 단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복수 표지는 ‘-들’의 발생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의미 기능 외에도 복수 표지 ‘-들’의 문법적 상태를 결정할 때 ‘-들’을 부속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이나 학교 문법에 따르면 명사와 ‘-들’이 결합하면 ‘-들’이 조사로 간주 된다. 이는 이전 성분과 ‘-들’ 사이에는 어떤 요소도 혼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의 예문을 다시 살펴보면 조사가 앞의 구성 요소와 ‘-들’을 혼동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복수 표지 ‘-들’은 조사로 볼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2.5. 문장에 결합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이다.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이들이 생략될 수도 있다. 문장의 경우 ‘철수는 몇 살이니?’, ‘세 살.’, ‘정말?’ 등과 같이 문장 끝에 ‘.’, ‘?’, ‘!’ 따위의 문장 부호를 찍는다.

아래의 (21)은 복수 표지 ‘-들’이 문장과 결합 가능성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21) 가. 숙제해 왔어요들 ?

나. 숙제해 왔어요 ?

(21, 가)는 복수 표지 ‘-들’이 ‘숙제 해 왔어요’라는 문장에 결합한 것이고, (21, 나)는 복수 표지 ‘-들’을 제거한 문장이다. 의미적으로 (21, 가)는 복수의 청자에게 묻는 내용이고, 반면 (21, 나)는 복수로 해석될 수 있으나, 단수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즉, 복수 표지 ‘-들’은 복수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영희(1986)는 서술어의 [-sing] 자질이 명사구에 복사되어 그 결과로 도입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최동주(2000)에서도 같은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서술어의 자질이 ‘들’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들’의 실현으로 복수형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임홍빈(1989)은 ‘-들’을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면서 복사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들’이 접미사라면 주어나 주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¹⁴⁾.

14) 임홍빈(1989)에서는 ‘들’을 통사적 파생 접미사로 보고 있으나, ‘들’의 복사 조건 중 주어나 주제의 직접 지휘 영역 안에 있는 성분 뒤에서만 복사될 수 있다는 것은 보조사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III. 우즈베크어의 높임·복수 표현 방법

우즈베크어에는 높임법의 요소가 따로 없고 단어의 복수형을 가지고 높임을 표현한다. 우즈베크어 문법에서는 조사 '-lar'가 복수형 조사로 정해져 있다. 우즈베크어의 연구 중 A.Gulomov(1944)는 대표적인 기초 연구이다. 이후의 연구들은 대체로 A.Gulomov(1944)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본연구에서도 A.Gulomov(1944)의 연구 내용을 근거로 하여 '-lar'에 대한 의미와 기능을 기술하고자 한다.

A.Gulomov(1944)는 '-lar'의 의미는 아래 (22)의 1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 (22) 가. 항목의 초과 수: 'daraxtlar'(나무들), 'yigitlar'(남자들)
나. 유형 의미: 'suvlar'(음료), 'unlar'(밀가루)
다. 다수의 갯단: 'xalqlar'(민족), 'ellar'(국가)
라. 존경: 'dadlar'(아버지께서), 'onamlar'(어머니께서)
마. 농담: 'senlar yana kelibsanlarda'(너희들이 또 왔니?)
바. 의미 강화: 'yuraklarim'(마음은), 'orzullarim'(꿈은),
사. 기호의 의미 명세: 'tabiatning go'zalliklarini ko'rdim'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아. 일반화: 'Botir, Aziz, Otabeklar birga kelishdi'
(Botir, Aziz, Otabek들은 함께 왔다.)
자. 동작 또는 반복의 긴 지속 시간:
'qadam tashlashlar unga tanish edi.'
(그에게는 익숙한 단계였다.)
차. '친척'의 의미: 'Adhamlar'(아드함의 가족)
카. 추측: 'o'n-o'n ikki yoshlarda'(십, 십이 세 정도)
타. 제한: 'non'(빵-일반적으로)

‘nonlar’ (빵의 일부, 빵의 여러 유형),
과. 복수형을 강조(두 개의 복수형): ‘bizlar’(우리들), ‘sizlar’(당신들)

위의 예들은 모든 의미가 복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22)의 ‘라, 마, 바, 자, 카’ 유형의 의미는 ‘복수형’의 의미론적 내용의 일부가 아니다.

A.Gulomov(1944)는 또한 동사 범주의 복수와 명사 범주 복수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언급한다.

(23) 가. 동사의 숫자는 인칭과 관련이 있다.

나. 동사의 인칭과 숫자 형태는 주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동사 복수형의 형태적 표현을 명사 범주의 그러한 표현과 비교할 때 형식적 유사성은 3인칭에서만 볼 수 있다. 이는 명사에는 직접 어간(원시적이든 인공적이든)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동사에는 ‘-lar’이 어근에 직접 결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3.1. ‘-lar’의 높임 표현과 기능

학교 문법에서는 ‘-lar’이 주로 ‘명사의 복수’ 어미로서 기술되어 왔다. 명사의 특징 중 하나는 수 범주이다. 명사의 수 범주는 서로 반대된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나눈다. 복수의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명사는 둘이나 그 이상의 대상(또는 부정 복수형)을 의미한다. 또는 접사 ‘-lar’이 존대, 강조, 종료 등을 표현하는 데도 있다. 추상 명사, 단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짝 또는 쌍을 나타내는 명사에 접사 ‘-lar’이 붙을 때 의미를 높이거나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조각으로 셀 수 없는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에 접미사 ‘-lar’이 추가되면 해당 대상의 유형, 종류, 다양성 또는 풍부함 등을 의미한다. 고유명사에 붙으면 화합, 일반화를 의미한다.

또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의 소유 접사 뒤에 접사 ‘-lar’을 붙이면 명사는 존대를 표현한다. 이는 ‘-lar’이 문장에서 복수형 기능을 할 뿐만이 아니라 존대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뜻하며, 다음과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다.

(24) 가. 명사의 복수형은 접사 ‘-lar’로 표현된다.

나. ‘-lar’이 ‘친족 호칭어’에 붙이고 존대를 표현한다.

우즈베크어 문법 초기연구에서부터 ‘-lar’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lar’의 실제적인 용법은 매우 복잡하여 기술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lar’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논의를 쟁점에 관한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음 (25)와 같이 분류하였다.

(25) 가. ‘-lar’는 명사에 소유격조사 뒤에 붙여 높임을 표현한다.

나. ‘-lar’는 명사와 소유격조사 사이에 붙여 복수를 표현한다.

존대 형태가 접사 ‘-lar’을 통해 만들어진다.¹⁵⁾ 이에 대한 예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akamlar	[-P1]	[+H1]	형님께서
dadanglar	[-P1]	[+H1]	아버지께서
tog'alari	[-P1]	[+H1]	삼촌께서

<표 1> 높임 표지 ‘-lar’의 위치

현대 우즈베크어에서 ‘-lar’은 복수형 접사로 숫자 범주의 단수형과 대조적으로 복수형(범주적)을 형성한다. 존경을 나타내는 접사로 기능적 형태를 이룬다. 접사 ‘-lar’에 의해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존경의 형태는 복수형과 다른 특징을 가

15) Sh. Shoabdurahmonov(1980) 『Hozirgi o'zbek adabiy tili』(현대 우즈베크 표준언어), 타슈켄트, p.244.

지고 있다.

아래의 <표 2>와 같이 소유격 접사가 1인칭인 경우에는 존경을 나타낼 때 단어의 소유격 접사 뒤에 ‘-lar’을 붙인다. 복수형을 나타낼 때 단어의 소유격 접사 앞에 접사 ‘-lar’을 붙인다.

akamlar	[-P1] , [+H1]	aka(형)/+m(1인칭 소유격)/+lar
akalarim	[+P1] , [-H1]	aka(형)/+lar/+m(1인칭 소유격)

<표 2> ‘-lar’의 소유격 조사에 결합

<표 2>와 같이 소유격 접사가 3인칭인 경우에는 명사 범주에 속하는 단어는 항상 숫자와 격조사의 형태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studentlarni kutib oldik.’(학생들을 마중했다.)라는 문장에서 ‘student’(학생) 단어가 복수형과 목적격조사 형성한다. 그러나 소유권의 형태가 없다. 이것은 소유격이 없는 명사가 복수형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존경 형태의 명사는 항상 소유의 형태를 가진다. 즉 소유의 형태 없이 존경의 형태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uylar	[+P1] , [-H1]	집/+lar
uylari	[+P1] , [+H1]	집/+lar/+i(3인칭 소유격)
quruvchilarning uylari	[+P1] , [-H1]	건축가들의 uy(집)/+lar/+i(3인칭 소유격)
tog'amning uylari	[-P1] , [+H1]	삼촌/+m(1인칭 소유격)/+ning(의)/uy(집)/+lar/+i((3인칭소유격)

<표 3> ‘-lar’의 서유격 조사의 위치에 따라 의미

Shoabdurahmonov(1980)에 따르면 문장에서 소유격 접사가 참여함으로써 존경이나 복수를 파악할 때 친족 호칭어와 관련된 단어로 문장이 복수형인지 존댓말 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친족 호칭어가 없는 경우에는 ‘-lar’이 존대가 아닌 복수를 표현한다.

인칭의 유형에 따라 행위자를 나타내는 어휘도 결정된다. 즉 행위자는 화자나

청자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어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단수	복수
1인칭	bordim	bordik
2인칭	boring	boringiz
3인칭	bordi	bordilar

<표 4> 우즈베크어의 인칭 어미

우즈베크어에는 동사의 서술형 종결어미가 인칭과 수에 따라 변한다. 즉 행위 주체에 대해서는 동사만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동을 수행하는 인칭과 그 인칭의 수에 해당하는 인칭 수의 범주가 정해진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을 인칭 어미라고 한다.¹⁶⁾ 다음에는 인칭 범주에 따른 ‘-lar’의 기능에 대해 살펴 보겠다.

<표 5>와 같이 1인칭 단수형은 행위자가 화자 자신임을 나타낸다.

가. bordim.	bor-(가-)/+di(과거 시제)/+m(1인칭어미)	(나는 \emptyset) 갔다.
나. keldim.	kel-(오-)/+di(과거 시제)/+m(1인칭어미)	(나는 \emptyset) 왔다.
다. bordik.	bor-(가-)/+di(과거 시제)/+k(1인칭어미)	(우리 \emptyset) 갔다.

<표 5> 1인칭 어미 활용

위의 <표 5>와 같이 한국어와 달리 우즈베크어는 문장 (가)와 같이 갔던 사람이 화자인 것을 용언만 있어도 알 수 있다. 문장 (나)도 마찬가지로 왔던 사람이 화자인 것을 1인칭 단수 어미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다)와 같이 1인칭 복수형은 행동이 화자가 속한 집단에 의해 수행됨을 의미한다.

16) M. Hamroev(2007) 『모국어』, 타슈켄트, p.139.

아래의 <표 6>은 2인칭의 단일성은 행위의 수행자가 듣는 사람이고, 복수형은 듣는 사람이 속한 집합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 bording.	bor-(가-)/+di(과거 시제)/+ng(2인칭 어미)
나. bordingiz.	bor-(가-)/+di(과거 시제)/+ng(2인칭 어미)/+iz(2인칭 복수어미)

<표 6> 2인칭 어미 활용

아래의 <표 7>은 3인칭 형식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행동의 실행자임을 나타낸다. 3인칭에서 ‘-lar’ 접미사는 복수형 표현에 사용된다.

가. bordi.	bor-(가-)/+di(과거 시제)
나. bordilar.	bor-(가-)/+di(과거 시제)/+lar(복수어미)

<표 7> 3인칭 어미 활용

아래의 <표 8>과 같이 동사의 1인칭과 2인칭 형태는 사람에게만 사용되고, 3인칭 형태는 사람(인물)과 사물에도 사용된다.

1인칭 keldim.	kel-(오-)/+di(시제)/+m(1인칭어미)	왔다.
2인칭 kelding.	kel-(오-)/+di(시제)/+ng(2인칭어미)	왔다.
3인칭(인물) keldi.	kel-(오-)/+di(시제)	왔다.
3인칭(사물) gulladi.	gulla-(피-)/+di(시제)	뾰다.

<표 8> 인칭 어미와 시제

아래의 (26)와 같이 문학적 표현에서 1인칭과 2인칭의 형태는 사물에도 적용된다.

(26) 'qizil vagon' yana qayerlarga olin borasan sen.

(‘빨간 마차’ 어디에 데려갈 거야, 너.)

=> qizil vagon(빨간 마차)/ yana(또)/ qayer(어디)+lar(강조의미)
+ga(에)/olib bora-(데려가-)+san(2인칭어미)/sen(너)

현대 우즈베크어에는 나이가 많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또는 전체적으로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2인칭 복수 어미 활용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현상은 2인칭 단수형의 사용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즉 아래의 예문 (27)과 같이 2인칭의 단수형에 대한 존대의 의미에서는 2인칭 복수형을 사용하지만, 2인칭 단수형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반말, 무례함, 경멸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27) 가. Yana aldamoqchimsan?(또 숙이려고?)

yana(또) aldamoqchi-(숙이-)+mi(의문문어미)+san(2인칭 단수어미,
반말, 경멸감)

그러나 나이가 같거나 적은 상대방의 행동과 관련하여 2인칭 단수 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정상이다. 따라서 -san 및 -siz 어미 형상은 단수 표현과 복수 표현의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sizlash’(높임말하기)와 ‘senlash’(반말하기)의 속성 측면에서도 구별된다. 인칭 어미 ‘-siz’이 붙은 형태가 문장 밖에서 복수형인지 단수형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아래의 (28)과 같이 복수형의 명시적 표현에서 이 형태 자체도 접사 ‘-lar’이 붙어 복수를 표현한다.

(28) 가. Borgansizlar. [+H2] (가셨습니다.)

borgan-(갔-)+siz(2인칭어미, 높임 의미)+lar(복수형)

위의 형식에는 항상 존경의 의미가 있다. 더 정확하게는 ‘sizlash’ (당신이라고 부르기, 또는 높임말 하기) [+H2] 방법이다.

(29) 가. Ishlar qalay, qiynalmayapsizlarmi?(일이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ish(일)+lar(접사, 강조의 의미, 보조사 역할) qiynal-(힘들-)+ma
(부정어미)+yap(현대시제)+siz(2인칭어미)+lar(접사, 아주 높임)+mi
(의문 종결어미)

복수형은 ‘-sizlar’ [+H2] 의 형태로 이루어진 형상이므로, 2인칭 복수형도 ‘senlash’ 형태로 형성된다. 아래의 (30)와 같이 형상은 2인칭 단수에 접사 ‘-lar’ 을 추가하여 파생된다 [+P2] .

(30) 가. Borgansanlar (갔다.) [+P2]

borgan-(갔-)+san(2인칭 어미, 반말의 의미)+lar(복수형)

아래의 (31)과 같은 형식은 반말을 표현하거나 단순한 태도를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31) 가. Hammang ko’chasanlar. (모두가 이사하라.)

hamma(모두)+ng(2인칭소유격)+ko’cha-(이사하-)+san(2인칭 단수어미)
+lar(복수어미, 반말 의미)

둘째 인칭 유형에서도 2인칭의 복수형은 둘 이상의 형태를 가진다. 아래의 (32) 유형에서처럼 ‘-lar’ 없이 복수형 어미를 2인칭 단수형 어미로 사용할 수 있다.

(32) 가. Bordingiz. (가셨다.)

bor-(가-)+di(과거 시제)+ng(2인칭 어미)+iz(복수어미)

위의 예는 복수나 단수 의미로 사용된 ‘Sizlash’ 높임법이다. 둘째 인칭 유형에서는 2인칭의 단수가 ‘Sizlash’ 높임을 의미하는 복수형 형태로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Bording	[-P2] , [-H2]
Bordinglar	[+P2] , [+H2]
Bordilaring	[+P2] , [-H2]

<표 9> ‘sizlash’ 높임법

2인칭 복수형은 접사 ‘-lar’을 추가하여 형성된 -ngiz 어미 형태로도 사용된다. 이 경우에는 어미 -ngiz의 앞이나 뒤에 -lar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

bordilaringiz	[+P2] , [+H2]
bordingizlar	[+P2] , [+H2]

<표 10> 동시에 높임·복수를 의미하는 ‘-lar’

따라서 이 유형에서 2인칭 복수형은 -ngiz, -nglar, -laringiz, -ngizlar 형식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 -ingizlar와 -laringiz으로 이루어진 형태는 비교적 드물다.

셋째 유형에서 2인칭 복수형은 위와 같은 표시를 가진다. (-ingiz, -inglar, -laring, -ingizlar, -lariniz). 명령형에서도 2인칭의 복수형은 bor-ing, bor-inglar, bor-ingiz, bor-laring, bor-ingiz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분명히 명령형에는 2인칭 단수가 있고, 이런 단수형에서 ‘-lar’ 접사를 사용하여 복수형을 만들 수 없다.

어미 -ing에 의해 형성되는 2인칭의 형태는 복수와 관련하여 단수의 존재 의미를 표현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sizlash’ 높임의 의미에서 복수형은 주로 -inglar 형태로 사용되며, ‘senlash’ 낮춤의 의미에서 -laring 형태가 사용된다. 복수형의 -ingiz 및 -ingizlar 형태는 주로 드물게 사용된다.

위의 세 가지 유형의 2인칭 복수형에서 3인칭 복수형은 동일한 기능, 즉 3인칭 복수형을 가진다.

ular keldi.(온다)	u(그)/+lar(복수 표지) //(keldi Ø)
ular kelgan. (오더-)	u(그)/+lar(복수 표지) //(kelgan Ø)
ular kelsin.(오길)	u(그)/+lar(복수 표지) //(kelsin Ø)

<표 11> 3인칭의 복수는 단수 어미 형식으로 표시된다.

ular keldilar.(그들이 오신다.) [+P1] , [+H1] , [+P2] , [+H2]	u(그)/+lar(복수·높임 표지)//(keldi (온다)/+lar(복수·높임)
ular kelganlar.(그들이 오셨다) [+P1] , [+H1] , [+P2] , [+H2]	u(그)/+lar(복수·높임 표지)//(kelgan(오더)/+lar(복수·높임)
ular kelsinlar.(그들이 오시길) [+P1] , [+H1] , [+P2] , [+H2]	u(그)/+lar(복수·높임 표지)//(kelsin (오길)/+lar(복수·높임)

<표 12> 3인칭의 복수·높임 표지 '-lar'의 활용

<표 12>의 경우에는 단수 또는 복수의 표현은 문장 밖에서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는 접사 '-lar'이 단수의 존대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33) 가. Otam keldilar.(아버지가 오셨다) [-P1] , [-H1] , [-P2] , [+H2]
ota(아버지)/+m(1인칭소유격조사)//(keldi(온다)/+lar(높임)

위의 (33) 예문은 주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keldilar'의 '-lar'는 복수의 의미가 아닌 높임의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34) 가. borishsin. (가시길)
bor(가-)+ish(높임·복수 요소 (-시-))+sin(길:바람)
나. kelishyapdi. (오시고 있다)
kel(오-)/ish(높임·복수 요소(-시-))+yapdi(고 있다)

위의 (34)은 'borishgan', 'kelishyapdi' 유형의 3인칭 복수형의 형태는 'sizlash(높임)'인 [+H2]의 의미를 표현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행위가 사물에 속할

때 ‘mevalar pishdi’(과일들이 익힌다), ‘gullar ochildi’(꽃들이 핀다)와 같이 단수형 자체도 복수형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복수형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인칭과 수 형식을 사용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이 현상은 주로 2인칭과 3인칭 형태에서 관찰된다. 1인칭 의미의 3인칭 형태의 사용은 우즈베크어 옛날 방식의 전형이며 현대 우즈베크어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faqir’, ‘kamina’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35). kamina aytdi = men aytdim

우리가 말씀드렸다. (저는 말했다)

2인칭 단수 ‘sizlash’(높임)의 의미에서 3인칭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도 우즈베크어의 옛 언어 형식이다.

(36). Nima hohlasalar hammasi bor.

무엇을 원하시면 다 있습니다.

2인칭 단수 어미의 형태와 의미에서 ‘sizlash’(높임)에 사용되는 형태는 일반적인 어미의 의미로 사용된다.

3.2. ‘-lar’의 복수 표현과 기능

우즈베크어에서 명사의 복수형 표지는 ‘-lar’ 뿐이다. 하지만 ‘-lar’가 없어도 복수를 나타내는 어휘로 복수를 표현할 수 있다. ‘-lar’는 복수형의 문법적 표지이기 때문에¹⁷⁾ 명사에 ‘-lar’가 없으면 이 어휘를 단수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명사의 경우에는 ‘-lar’ 없이도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일부 동사의

17) A. Gulomov(1944), 『우즈베크어의 복수 범주』, 타슈켄트, Uzdavnashr, p.56.

경우 단수형은 자체 표지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는 동사에는 단수와 복수 표현이 다르기 때문이다. 숫자 또는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단수 형태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된 예문은 아래의 (37)과 같다.

(37) 가. Yuzta daftar. (백 권 공책)

나. ko'p odam. (많은 사람)

다. shu qadar kitob. (이만큼 책)

A. Gulomov(1944)은 형태학적으로 명사에는 조사 '-lar', 동사에는 인칭 어미 '-ingiz', '-k', '-lar'로 표현되는 것은 문법적 복수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복수를 의미하는 단수 명사(단체의 이름, 민족의 이름, 동물의 이름 등)는 사용되며, 그는 의미를 사전적으로('qo'l'손, 'armiya'군대, 'to'da'무리) 복수를 이해하였으며, 그 뿐만 아니라 위의 (37)과 같이 구문적으로 '백 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논리적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이 경우 '-lar'가 없는 명사는 복수를 의미하더라도 문법적으로는 단수로 간주된다.

그러나 우즈베크어에는 '수' 범주에 문법적 의미의 숫자가 없다. 즉 모든 형용사에 문법 복수 표지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들 중에 'yolg'iz'(단독), 'talay'(다수) 등 일부는 어휘적 복수를 나타낸다. 이런 다양성은 주로 단어의 어휘적 의미에 기인하며, 때로는 문맥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A.Gulomov(1944)는 단수와 복수의 범주를 단지 문법적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하며, 아래 (38)의 'bolalar' 같이 'lar'가 행위 주체에 대한 복수의 의미도 있지만, 'yugurdilar'와 같이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lar'는 서술어에 결합하고 주어의 복수에 일치를 표현하고 복수 형태를 가진다.

(38) 가. bolalar yugurdilar.

아이들이 뛰었다.

'-lar'는 우즈베크어에서 명사에 붙여 복수형을 나타낸다. 따라서 '-lar'¹⁸⁾은 복

18) A. G'ulomov(1994) 「우즈베크어 복수형 범주」, 타슈켄트, O'zdnashr, p.56.

수형의 문법적 표지이다. 복수로 표현될 때, 단수는 접미사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특별한 형식 표지가 없다는 사실로 식별된다.

(39) 가. daraxt(나무)

나. daraxtlar(나무들)

우즈베크어에는 한국어와 달리 높임을 나타낼 때 인칭 대명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칭 대명사에는 1인칭 대명사 화자, 2인칭 대명사 청자, 3인칭 대명사는 제삼자가 있다. 우즈베크어 인칭 대명사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3>과 같다.

	단수	복수
1인칭	men	biz
2인칭	sen	siz
3인칭	u	ular

<표 13> 우즈베크어의 인칭 대명사

위의 <표 13>을 보면 단수형 대명사에는 men, sen, u이 있고, 복수형 대명사에는 biz, siz, ular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복수형 대명사가 단수형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복수형 biz이 단수형 men의 의미로 쓰일 때는 겸손을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다.

1인칭 단수형은 접사 ‘-lar’와 결합하지 않으며, 2인칭 단수 sen이 접사 ‘-lar’와 같이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청자에게 무례함으로 비취질 수 있다. 그 외에 같은 가족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1인칭과 2인칭 복수 대명사(biz, siz)에 접사 ‘-lar’이 오면 화자와 청자의 복수형이 아니라 화자 한 명과 그 외 사람들을, 청자 한 명과 그 외 사람들을 의미한다.

3인칭 단수 대명사는 제삼자만을 의미하고, 복수 대명사는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명사의 의문대명사에 접사 ‘-lar’이 붙으면 복수의 의미나 혹은 한 사람에 대

한 존경을 나타낸다.

(40) 가. biz bu masalani boshqa usul bilan hal qildik.

(겸손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

나. kimlarni ko'rayapman?

(누구를 봐요?)

위의 (40나)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태도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상대방을 존대하고 놀라운 느낌을 전할 때 쓰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모를 때다. (40가, 나)에는 화자의 태도에 따라 2인칭, 3인칭 복수 대명사 siz과 ular이 대명사 sen과 u 대신에 사용되며, 이 경우 단수의 의미와 존경의 의미를 부여하며, 인칭과 숫자가 단수로 변한다.

(41) 가. siz bir oz dam oling.

(잠깐 쉬세요.) * siz(단수 존대)

나. nega ular gapirmaydilar-a, ona?

(왜 말을 안 하시지, 엄마?) * ular(단수 존대)

Hojieva(2000)은 인칭 대명사는 접사 '-lar'와 결합하지만, 복수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1인칭 단수는 접사 '-lar'와 결합하지 않는다.¹⁹⁾ 대명사 'sen'이 접사 '-lar'와 결합할 때 청자 및 다른 개인에 대한 가족적인 태도 또는 청자에 대한 약간의 차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42) Senlarga aytayapman.

(sen(2인칭 단수 대명사)+lar/+에게//말한다.)

위의 (42) 'senlarga'는 '너' 또는 '너 같은 사람들' 뜻하고, 낮춤의 의미를 표현

19) H. Hojieva(2000) 「인칭대명사의 존대 의미」 // 우즈베크어문학, 타슈켄트, 37,38pp.

하며, 그 외에도 차별 의미도 있다.

접사 ‘-lar’는 3인칭 단수 대명사 u(그)에 붙는 경우 존대를 나타낸다.²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13>을 참고할 수 있다.

가. U keldi. [-P1] , [-H1] , [-P2] , [-H2]	u(3인칭 대명사) 그가 온다.)
나. Ular keldilar. [-P1] , [+H1] , [-P2] , [+H2]	ular(3인칭 <u>단수</u> 대명사) 그가 오신다.)

<표 14> ‘lar’의 높임 어미 활용

<표 13> (가)의 ‘U keldi.’는 ‘그는 온다.’라는 뜻으로 복수와 존대의 의미가 없는 단수형 문장이다. <표 1> (나)의 ‘Ular keldilar.’는 화자가 한 명일 경우 접사 ‘-lar’는 존대 의미를 표현한다. Sh. Shoabdurahmonov(1980)는 존대를 표현할 때 접사 ‘-lar’는 복수 의미를 잃는다고 하였다.

1인칭과 2인칭의 단수와 복수에는 특별한 어미가 있다. 반면에 3인칭 복수는 인물을 지시하는 특정의 어미가 없다. 이 경우 복수의 의미는 단수에 접사 ‘-lar’를 붙이거나 단수의 형태로 표현한다. 이는 대다수의 경우에 단수 자체도 복수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문으로 아래의 (43)를 참고할 수 있다.

(43) 애들이 왔다.

가. bolalar keldilar. [bola(아이)+lar(복수 접사) kel-(오-)
+di(시제)+lar(복수)]

나. bolalar kelishdi. [bola(아이)+lar(복수 접사) kel-(오-)
+ish(복수 선어말어미)+di(시제)]

다. bolalar keldi. [bola(아이)+lar(복수 접사) kel-(오-)+di(시제)]

20) Sh. Rahmatov(1973) 「존대 형상」 우즈베크어문학, 타슈켄트, 28-30pp.

현대 우즈베크어에는 인칭과 수 어미에 몇 가지 유형의 인칭 표지가 있다. 이에 대해 특성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완료의 분사와 부사 형식으로 만든 과거 시제 형태, 현재 시제 종결어미, 현재·미래 시제 형태, 1인칭 단수형은 ‘-man’, 복수형은 ‘-miz’, 2인칭 단수형은 ‘-san’, 복수형은 ‘-siz’ 표지를 가진다. 3인칭의 표지에는 ‘-di’나 ‘-dilar’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 표지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4>와 같다.

	단수	복수
1인칭	-man	-miz
2인칭	-san	-siz
3인칭	-di(∅)	-di(∅)lar

<표 15> 현재·미래 시제에 ‘-lar’의 결합

㉡ 과거 시제 어미에는 ‘-di’ 및 불완전 이중 동사 ‘edi’가 있으며, 1인칭 단수형은 ‘-m’, 복수형은 ‘-k’, 2인칭 단수형은 ‘-ng’ 복수형은 ‘-ngiz’를 사용하는 데, 이 경우에는 직설법을 나타낸다. 3인칭은 특별한 지표가 없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5>와 같다.

	단수	복수
1인칭	-m	-k
2인칭	-ng	-ngiz
3인칭	-∅	-∅ lar

<표 16> 과거 시제에 ‘-lar’의 결합

㉢ ‘yo’q’라는 단어로 형성된 과거 및 현재 시제 동사의 부정형에서 인칭 어미는 소유격 접사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

	단수	복수
1인칭	-m yo'q	-k yo'q
2인칭	-ng yo'q	-ngiz yo'q
3인칭	-i yo'q	-i(lar) yo'q

<표 17> 부정형 인칭 어미에 '-lar'의 결합

㉔ 명령은 인칭과 수 어미는 따로 표지를 제공한다.

	단수	복수
1인칭	-ay	-aylik
2인칭	-∅, -gin	-ing, -ingiz, -laring, inglar
3인칭	-sin	-sinlar, -ishsin.

<표 18> 명령 인칭 어미에 '-lar'의 결합

인칭 어미 중 1인칭의 단수형은 그 인칭의 단일성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고, 2인칭의 단수형은 그 인칭의 복수형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주로 '-lar'가 연결되어 'sensirash'('너'라고 말하기, 또는 반말하기), '무례함', '위협적' 의미를 나타내는 관계에서 발생한다. 복수형의 의미는 인칭 어미 또는 접사 '-lar'가 있는 기타 매체로 표현된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의 (44)을 참고할 수 있다.

(44) 가. senlar aytgansan.(너희들 말했다 거야.)

=> sen(너)+lar+aytgan(말했-/+san(∅, 2인칭어미))

나. hammang kel. (모두 와)

=> hamma(모두)+ng(2인칭 소유격 접사)+kel(오-, 명령)

각 인칭의 복수형을 사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인칭의 복수형은 그 인칭 단수형에 적용된다. 그런 경우 겸손, 오만 또는 풍자 의미를 표현하며, 예를 들면 아래의 (45)와 같다.

(45). Tushki payt soch-soqolni oldirdik, mo'ylovni qaychilattik, atirni septirdik.

=> tushki payt(접심 때)+ soch-soqolni(머리와 수염을)+oldirdi-
 (잘랐-)+k(1인칭 복수 어미)+mo'ylovni(콧수염을)+qaychilatti-
 (가위질했-)+k(1인칭 복수 어미)+atirni(향수를)+septirdi-
 (뿌렸-)+k(1인칭 복수어미)

위의 (45)는 모두 1인칭 복수 어미 '-k'가 단수 의미로 사용되어 화자의 태도에 겸손함이 표현되게 한다.

2인칭 복수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2인칭 단수형 자리에 다음과 같이 2인칭 복수 어미가 결합한다. 그리고 '-siz' 어미는 2인칭 단수에도 널리 사용되며, 이런 경우에는 존대 의미를 표현한다.

-siz	borasiz (bora-(가-)+siz(2인칭 어미))	가세요
-sanlar	borasanlar (bora-(가-)+san(2인칭 단수 어미) +lar(복수어미))	가세요~ (여러 사람들에게 가라는 뜻)
-sizlar	borasizlar (bora-(가-)+siz(2인칭 복수 어미) +lar(복수어미))	가십시오

<표 19> 2인칭 어미의 복수·높임 표현

IV.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높임·복수 표현 구조 대조

4.1. ‘-시-’ 와 ‘-lar’의 대조

높임법의 발달은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 중 하나이다. 높임 표지는 의사소통 참가자 간의 사회적, 심리적 관계를 나타내며 청자의 행동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반영한다. 그 중 ‘-시-’는 일반적으로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시-’의 유무에 따라 동일한 상황을 언급하는 문장에서도 화자의 심리적 상태와 듣는 사람을 존대하려는 의도가 달라지고, 말의 의미도 변한다. 이는 ‘-시-’의 용법이 문장에서 서술어와 주체(주로 주어)의 관계를 나타내면서도 화자의 부드러운 태도와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 문법에서 높임 표지 ‘-시-’는 주로 ‘주체높임법’ 선어말어미로서 기술되어 왔다. 이는 ‘-시-’가 문장 속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뜻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46)와 같다.

(46) 가. ‘-시-’는 그 자체가 ‘존대’의 의미를 표현한다.

나. ‘-시-’가 높이는 대상은 ‘주체’이다.

한국어 문법에서 ‘-시-’에 관한 논의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시-’의 실제적인 용법이 매우 복잡하여 단정적으로 기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국어원의 표준언어 예절(2011)에서는 ‘-시-’를 사용 양상에 따라 주체높임법, 간접 높임법, 사물 높임법, 압존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이 분류들 가운데 한국어의 주체높임법 양상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4.1.1. 주체 높임법 대조

주체높임법이란 어떤 행위, 상태, 존재의 주체에 대한 존대 여부를 표현하는 높임법으로 존대 대상이 화자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존대의 표현을 하게 된다. 화자가 어떤 명사를 존칭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 명사가 주어의 자리에 오면, 그 서술어에는 선어말어미 ‘-시-’를 취하게 된다.

(47) 선생님_{NP}이 왔다. (O'qituvchi keldi.)

위의 (47) ‘선생님’은 존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임의 선어말어미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나, 위 문장에서는 화자가 사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시-’를 생략한 경우다. 이에 대해서는 ‘-시-’는 청자의 ‘의도와 의향’을 표시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어의 높임법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아 노출과 관련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우즈베크어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대응 문장에서는 높임의 표지가 제시되지 않으며, 사회적 조건에 따라 화자가 ‘-lar’를 생략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표 20>을 참고할 수 있다.

명사	접사	격조사	어간	시제	종결	
선생	-님	-이	[-P1] [-H1]	오-	-았-	-다. [-P2] [-H2]
O'qituvchi	-∅	∅	[-P1] [-H1]	kel-	-di.	[-P2] [-H2]

<표 20> ‘-lar’의 생략

(47)의 문장을 분류한 <표 20>에서 한국어 주어 성립은 명사 ‘선생’에 높임의 접사 ‘-님’이 결합하고, 그 뒤에 주격 조사 ‘-이’가 붙는 것이다. 하지만 우즈베크어 주어 자리에는 선생을 뜻하는 ‘O'qituvchi’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데, 이는 우즈베크어에는 ‘-님’에 대응하는 어휘가 없기 때문이다.

Juraev(2018)는 한국어의 주격 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가 우즈베크어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²¹⁾ 이는 우즈베크어의 특징 중 하나이며, (46)에서 서술어 ‘오다’의 어간에 과거 시제 어미 ‘-왔-’이 오고 그 뒤에 종결어미가 연결되어 있다. 이는 일반 서술어의 단수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즈베크어 특징은 서술어가 주어의 수와 인칭에 일치하는 것이고, 시제 어미는 종결어미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시제 어미가 종결어미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47)의 ‘오-’를 뜻하는 ‘kel-’에 3인칭 시제 종결어미 ‘-di’가 결합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서술어의 의미는 화자 또는 청자가 아닌 제3자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48) 선생님이 오셨다.

O'qituvchim keldilar.

위의 (48)을 보면 주체높임법은 서술어인 용언의 어간에 높임 표지 ‘-시-’를 붙이거나 주어인 체언에 높임의 조사 ‘-께서’를 결합함으로써 성립된다. (48)은 규범적으로 동사 어간에 ‘-시-’가 사용된 것이다. 이는 문장의 높임 대상인 선생님을 높여서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48)에서와 같이 조사 ‘-께서’는 화자의 판단에 따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께서’는 주체를 깎듯하게 높여야 하는 상황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로 사용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시-’ 만으로도 주체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께서’가 ‘-시-’ 보다 높임의 강도가 높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시-’만 쓰고 ‘-께서’를 쓰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워도 ‘-께서’를 쓰고 ‘-시-’를 쓰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우즈베크어 대응 문장에도 한국어처럼 서술어에 ‘-lar’를 붙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48)에서 보이는 것처럼 ‘-께서’의 의미에 대응하는 ‘-lar’가 주어에 붙지 않고 생략된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어에 ‘-lar’를 결합하여 말하는 것이 완벽한 높임이 된다.

21) Juraev(2018)「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문법 요소에 대응에 관한 연구, -격조사 대조를 중심으로-」 p.32.

우즈베크어의 높임법에서 소유격 조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²²⁾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21>을 참고할 수 있다.

명사	높임 접사	격조사		어간	높임	시제	종결
선생	-님	-이	[-P1] [-H1]	오-	-시-	-었-	-다. [-P2] [-H2]
명사	소유격	격조사		어간	시제	종결	높임
O'qituvchi	-m	∅	[-P1] [-H1]	kel-	-di.	-lar	[-P2] [-H2]

<표 21> 높임법에서 소유격 조사의 역할

일부 논의에서는 [+H2]의 자질을 지닌 주어가 나타나면 이 자질과의 일치성을 위해 주체 높임의 '-시-'가 서술어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주어라도 화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시-' 사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시-'에 의한 주체 높임은 인구어의 일치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주체 높임의 '-시-'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49)의 우즈베크어 대응 문장에서 행위 주체는 'o'qituvchi'(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서술어에도 높임의 표지 '-lar'가 결합 되어 높임의 기능을 하고 있다.

(49) 선생님께서 오셨다.

O'qituvchimlar keldilar.

아래의 <표 22>는 예문 (49)을 분석한 것이다.

명사	높임접사	격조사		어간	높임	시제	종결
선생	-님	-께서	[-P1] [+H1]	오-	-시-	-었-	-다. [-P2] [+H2]
명사	소유격	높임		어간	시제	종결	높임
O'qituvchi	-m	<u>-lar</u>	[-P1] [+H1]	kel-	-di.	<u>-lar</u>	[-P2] [+H2]

22) 우즈베크어의 소유격 조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 소유격 조사로 나뉜다. 1인칭 소유격 조사는 인물이나 사물이 화자에 속한 것이다. 2인칭 소유격 조사는 인물이나 사물이 청자에 속한 것이다. 3인칭 소유격 조사는 제3자에 속한 것이다.

<표 22> ‘-lar’의 높임 기능 분석

아래 (50) 예문은 행위 주체에 복수와 높임의 접사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이다.

(50) 가. 선생님들께서 오셨다. (O'qituvchilarim kelishdilar.)

명사	높임접사	복수	격조사	어간	높임	시제	종결	
선생	-님	-들	-께서	[+P1]	[+H1]	오-	-시- -었- -다. [-P2] [+H2]	
명사	복수	소유격		어간	어미	시제	종결	높임
O'qituvchi	-lar	-m	[+P1] [+H1]	kel-	-ish	-di.	-lar	[+P2] [+H2]

<표 23> ‘-들’과 ‘-lar’의 기능 차이

위의 <표 23>과 같이 한국어의 ‘-들’은 명사에 직접 붙거나 혹은 높임의 접사와 격조사 사이에 붙어 복수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는 <표 23>과 같이 복수 표지 ‘-lar’은 명사에 직접 붙으며 소유격 조사보다 앞자리에 사용되어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

결국 한국어에서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접사 ‘-님’ 혹은 ‘-께서’는 명사 뒤에 붙지만, 우즈베크어에는 ‘-님’이나 ‘-께서’에 대응하는 문법 요소가 없다. 따라서 우즈베크어는 ‘-lar’가 소유격 조사 ‘-m’ 뒤에 결합하여 높임을 표현한다.²³⁾

(50)의 ‘-lar’는 명사에 직접 붙고 소유격 조사 ‘-m’의 앞에 사용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lar’가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 ‘-lar’이 명사에 결합하여 높임이나 복수를 의미하는 것은 소유격 조사에 의한 결과이다.

(50)에서는 주어가 높임 대상이기 때문에 서술어에 높임 표지 ‘-시-’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한다. 선어말어미 ‘-시-’는 주체높임법의 대표적인 형태소다. 서술어의 구성 순서는 ‘어간-> 선어말어미(시제)-> 종결어미’로 나타난다.

(59)의 우즈베크어 예문에서 주어는 높임 대상, 수는 단수형, 인칭은 화자에 관

23) 본 연구 3장에서 높임을 표현할 때 소유격 조사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한 3인칭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높임, 수, 인칭 등에 일치한다. 이 경우 높임 표지 ‘-lar’는 선어말어미(시제) 뒤에 결합한다. 그러나 (50)와 같이 주어가 복수형이고 높임의 대상일 때는 서술어 어간에 공동 표지 어미에 ‘-ish’가 붙어서 복수의 의미를 표현하고, ‘-lar’는 선어말어미(시제) 뒤에 붙어 높임의 의미를 표현한다.

(51)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그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Ustoz, Siz ham bu kitobni yaxshi ko'rar ekansizda.

위의 (51)에서는 청자가 동시에 주어가 되는 경우다. 높임의 조사 ‘-께서’도 쓰이고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 문장에는 높임 표지 ‘-lar’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²⁴⁾ 우즈베크어에는 청자가 주어고,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는 2인칭 복수 대명사 ‘siz’을 쓰는 것으로 상대를 높인다. 서술어가 주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달리 우즈베크어 문장에서는 서술어에도 2인칭 복수 종결어미 ‘-siz’가 결합하게 된다.

한편 우즈베크어의 복수형 표지에는 높임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도 높임 의미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용법은 특히 상대를 높일 때 자주 사용된다. 반면에 한국어에는 보통 상대를 지시할 때 대명사를 잘 쓰지는 않는다.

명사 높임	접사 높임	어간	선어말어미(높임)	종결어미
선생 -님	-께서 [-P1] [+H1]	좋아하-	-시-	-는군요. [-P2] [+H2]
대명사		어간	인칭	종결어미
Siz	[-P1] [+H1]	yaxshi ko'rar ekan	-sizda	[-P2] [+H2]

<표 24> 2인칭 대명사의 높임 기능

<표 24>는 ‘-lar’를 사용하지 않은 2인칭 대명사와 2인칭 소유 어미를 활용하여 상대를 높이는 문장 분류이다.

24) 3장에서는 높임 표지 ‘-lar’이 활용하지 않고 2인칭 대명사와 2인칭 소유어미로 인해 높임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자세히 언급한다.

한국어는 청자를 높일 때 주어의 경우에 호칭어를 쓰고 그에 높임 조사를 결합하여 [+H1] 을 표현한다. 그러나 우즈베크어는 청자를 높일 때 2인칭 복수형 대명사로 [+H1]을 나타낸다. 한국어의 서술어는 수와 인칭이 일치하지 않아서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기 쉽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는 ‘잡수시다, 계시다,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주무시다’ 등과 같이 대체로 ‘-시-’를 취할 수 있는 어휘가 따로 있지만, 우즈베크어는 일반 동사에 뒤에 ‘-lar’을 붙여 ‘-시-’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52) 가. 할머니, 어머니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Buvi, onam ovqatlarini yesinlar dedi.

나. 할머니, 어머니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

Buvi, onam ovqatlarini yesin dedilar.

한국어의 경우 위의 (52, 가)와 같이 할머니에게 어머니의 말을 전달할 때는 부모에 대해서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 예절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전통도 변하여 (52, 나)와 같이 부모보다 윗분에게도 부모를 높여 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우즈베크어는 한국어와 달리 특수 존대 어휘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 어휘 뒤에 ‘-lar’을 붙여 높임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부모를 부모보다 윗분에게 높여 말할 경우 ‘잡수시다’에 대응하는 표현을 만들기 위해 ‘-lar’가 ‘yesin’에서 생략될 수도 있다.

간혹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낮추어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어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모를 말할 때는 언제나 높여야 하며, 학교 선생님에게 부모를 말할 때도 (52)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언어 예절에 맞다.

한국어에는 ‘하느님’이나 ‘신령님’에게도 ‘-시-’를 사용한다. 또한 (53, 가)와 같이 ‘비’를 존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비’를 하느님의 은혜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즈베크어에서는 존대 받은 대상이 사람이 아닐 경우 서술어에 ‘-lar’를 붙이지 못한다.

(53) 비가 오신다.

yomg'ir yog'diØ.

한국어에서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는 모든 동사 어간에 자유로이 결합할 수 있으나, 우즈베크어에서는 높임 표지 ‘-lar’는 시제와 인칭 소유 어미 뒤에만 결합이 가능하다.

(54) 가. 아버지 좀 오라고 해라.

dadangni kel de.

나. 아버지 좀 오시라고 해라.

dadangni keling de.

한국어에서 손주에게 아들에게 할 말을 전할 때는 (54, 가)와 같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넣지 않고 말한다. 그러나 (54, 나)와 같이 ‘아버지’를 대우해야 할 윗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교육적인 차원인 경우는 서술어에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넣어 쓸 수도 있다.

우즈베크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손주보다 윗사람이라고 보고 (54, 나)와 같이 ‘-ing’ 2인칭 높임 명령문 어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4, 가)와 같은 우즈베크어 예문은 2인칭 낮춤 명령문 어미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55) 가. 민수 씨가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Minsu bu ishni yakunladi.

나. 김 대리 거래처에 가셨습니까?

Agent Kim bugalteryaga ketdilarmi?

다. 총무과장님 이 일을 하셨습니다.

Bosh direktor bu ishni qildilar.

보편적으로 직장에서 상사에게 높임 표현을 쓰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호칭어 사용에서 지칭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 그 지칭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칭 대상이 동료이거나 아래 직원인 경우는 (55, 가)처럼 주체 높임의 ‘-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만, 한국어에는 직급이 높은 사람은 물론이고 직급 같거나 낮은 사람에게 말할 때도 ‘-시-’를 넣어 (55, 나)처럼 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윗사람 앞에서 그 사람보다 낮은 사람을 낮추는 것이 가족 간이나 사제 간처럼 사적인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쓰는 것은 어색하다. 따라서 직장에서 윗사람을 그보다 윗사람에게 지칭하는 경우 주체를 높이는 ‘-시-’를 사용하여 (55, 다)처럼 높여 말하는 것이 언어 예절에 맞다.

우즈베크어의 언어 예절에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lar’를 사용하여 직장 동료를 높여 말하는 방식이 있다. 이 점은 아래의 <표 25>를 통해 한국어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사	서술어
-lar =	[+P1] , [+H1]	[+P2] , [+H2]
-시- =	[-P1] , [-H1]	[-P2] , [+H2]
-께서 =	[-P1] , [+H1]	[-P2] , [-H2]

<표 25> 복수·높임 표지의 대응 관계

주체 높임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높임 표지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한국어 ‘-시-’는 서술어 어간에 붙어 주체의 주어 높이는 [+H2] 역할을 하며, ‘-께서’는 주어에 결합하여 [+H1] 역할을 한다. 우즈베크어 ‘-lar’는 주어와 서술어에 붙어 주어 또는 주어에 관한 사물이나 동작의 높임을 표현한다. 한국어 ‘-시-’는 선어말어미로써 서술어에 어간에 직접 결합하지만, 우즈베크어 ‘-lar’는 주어의 소유격 조사 뒤에 붙어 [+H1] 되고, 서술어의 인칭 소유격 어미 뒤에 ‘-lar’가 결합하여 [+H2]가 된다. 이런 이유로 학습자들은 높임법을 표현할 때 ‘-lar’의 위치와 결합 방식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

4.1.2. 간접 높임법 대조

한국어의 간접 높임법은 주체와 관련된 신체, 생활의 필수 조건이 되는 사물, 개인적 소유물 등과 호응하는 서술어에 ‘-시-’를 붙이지만, 우즈베크어의 간접 존대는 주체와 관련된 신체, 사물, 소유물을 의미하는 단어에 ‘-lar’을 붙인다.

- | | |
|---|---------------|
| (56) 가. 할아버지는 수영이 많 <u>으시</u> 다. ²⁵⁾ | [-H1] , [+H2] |
| Bobomning soqoll <u>lari</u> ko’p. | [+H1] , [-H2] |
| 나. 그 분은 살림이 넉넉 <u>하</u> 시다. | [-H1] , [+H2] |
| U kishining hayot <u>lari</u> mazmunli. | [+H1] , [-H2] |

위의 (56) 한국어 예문에서는 문장의 주체에 관한 소유물을 높이는 서술어 어간에 ‘-시-’를 결합해서 표현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는 주체에 관한 소유물을 의미하는 단어에 ‘-lar’가 결합 되어 [+H1]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 간접 높임에는 서술어에 높임 표지 ‘-lar’을 붙이지 않고 [-H2]로 표시된다.

- (57) 선생님, 넥타이가 멋있으세요.
 Ustoz, galustukingiz chiroyli ekan

한국어에는 위의 (57)와 같이 간접 존대법도 있지만, 우즈베크어는 청자와 관련성이 있는 사물을 청자에 말하는 표현이라서 2인칭 높임 표지 ‘-ngiz’ 활용하게 된다.

한국어의 간접 높임이 주어에 관한 사물을 높여 문장의 서술어에 ‘-시-’붙여서 [+H2]로 활용한다. 우즈베크어의 간접 높임은 ‘-lar’를 서술어보다 주어에 관한 사물을 뜻하는 단어에 붙이고 [+H1]로 활용된다.

우즈베크어 간접 높임에는 인칭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물이 1인칭에 속할 때 높이지 않지만, 2인칭에 속할 때는 2인칭 복수 소유격 어미 ‘-ngiz’을 사용하

25) 학교문법에서는 ‘수영이 많으시다’를 서술절로 보고 있다.

여 높임을 표현하게 된다. 사물이 3인칭에 속한 경우에는 3인칭 소유격 복수 어미 ‘-lar’을 붙여 높임을 표현한다. 우즈베크어의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간접 높임을 사용할 때 높임 표지 활용 위치나 차이점 때문에 오류를 겪는 경우가 많다.

4.1.3. 사물 높임법 대조

선어말어미 ‘-시-’가 가지는 주체높임의 의미를 사물에 적용하는 현상을 사물 높임법이라고 한다. 아래의 (63)과 같은 발화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보통 서비스업계에서 고객을 공손히 대우하기 위해 사물 존대를 발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현 양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물 존대라는 현상이 마치 경어법의 확장인 것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58)의 예문을 통해 서비스 판매업 종사자들이 고객을 존대하려는 의도로 불필요한 ‘-시-’를 넣어 표현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 (58) 가. 주문하신 커피 나오 <u>셨</u> 습니다. | [-H1] , [+H2] |
| Buyurtma qilgan kofey <u>ingiz</u> keldi. | [+H1] , [-H2] |
| 나. 문의하신 상품은 품질이 <u>쉽</u> 니다. | [-H1] , [+H2] |
| So'ragan tavar <u>ingiz</u> sifatli. | [+H1] , [-H2] |
| 다. 말씀하신 사이즈가 없으 <u>쉽</u> 니다. | [-H1] , [+H2] |
| Aytgan o'lcham <u>ingiz</u> yuq ekan. | [+H1] , [-H2] |

(59, 가)의 예문들은 한국어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문법적인 문장들이다.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더라도 ‘-시-’를 문법 표지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 따라서 ‘칭자 존대’ 용법으로 문법 외적인 ‘-시-’의 사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우즈베크어에 나타나는 현상을 비교해보면, 우즈베크어에서는 간접적으로 청자를 높일 때 자주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즈베크어에서 간접적으로 청자를 높일 때는 주어가 어느 인칭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만약 (63)의 예문과 같이 높여야 할 대상이 2인칭이면서 그의 소유물인 경우에는 높임 표지 ‘-lar’의 활용이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2인칭 소유 복수 어미를 활용한다.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 높임 표지가 높임의 대상 서술어에 붙여 활용하지만, 우즈베크어에서는 높임의 대상 소유물에 소유 높임 표지인 ‘-ngiz’이 붙여서 활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ingiz’ 소유 어미가 기능적으로 ‘-lar’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ingiz’의 경우 사용에 제한점이 있어 아래의 설명과 같이 2인칭 복수나 높임을 나타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aytgan(말씀하신) o’lchamingiz(사이즈) yo’q ekan(없으시다)’의 문장에서는 2인칭 소유 어미 ‘-ngiz’ 대신에 우즈베크어의 옛날 표현 방식인 ‘aytgan(말씀하신) o’lchamlari(사이즈가) yo’q ekanlar(없으십니다).’와 같이 ‘-lar’를 자주 사용한다.

(63)의 예문들처럼 한국어에서 ‘-시-’를 남용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즉 ‘커피’, ‘상품’, ‘사이즈’는 청자의 사유물 혹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사이즈가 없습니다.’, ‘품질입니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우즈베크어는 한국어와 달리 ‘ko’fe, tavar, o’lcham’ 등을 청자에 관한 소유물이라 보지만 이 경우 ‘-lar’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청자 2인칭 소유 어미로 표현한다.

- | | |
|----------------------------------|---------------|
| (60) 가. 갈비탕이 누구 <u>시</u> 죠? | [-H1] , [+H2] |
| Kalbitang kimnikiø? | [-H1] , [-H2] |
| 나. 집 앞까지 배달되 <u>실</u> 니다. | [-H1] , [+H2] |
| Uy oldigacha yetkazib beriladiø. | [-H1] , [-H2] |

위의 (60)는 존대 대상이 문장 속에 존재하지 않지만, 서술어를 통해서 문장속의 상황을 통해 존대의 대상이 ‘손님’이라는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

장에 주체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서술어에 존대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즈베크어는 한국어와 달리 문장 속의 불확실한 대상을 존대하려고 높임 표지를 실현하지는 않는다.

- (61) *아버님은 철수가 붙잡으셨다. [-H1] , [+H2]
Otani Cholsu ushladi \emptyset . [-H1] , [-H2]

한국어에서 높임 표지를 주제 존대라고 한다면, 위의 (61) 문장의 경우 주체인 ‘아버님’을 높이는 문법 표지로서 ‘-시-’ 쓰였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우즈베크어는 이런 경우 높임 표지 실현이 불가능하여 [-H1] , [-H2]로 표현된다.

- (62) 가. (선생님은) 생일선물이 고민이세요?

(O'qituvchi) Tug'ilgan kun sovg'asidan tashvishlanyapsizmi?

위의 (62, 가)에서는 청자인 ‘선생님’을 생략된 전체 문장의 주어로 파악한다. 이러한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는 요소로서의 ‘-시-’에 관한 판단은 최근의 청자 높임(상대높임)표지로 전환하는 ‘-시-’를 인정하는 등 복잡해지는 ‘-시-’ 해석을 피하고 ‘-시-’를 문법적 존대 요소로 일관되게 바라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우즈베크어에서는 이런 경우 높임 표지 ‘-lar’가 아니라 2인칭 대명사의 종결어미를 ‘-siz’을 활용하여 상대 높임을 표현한다.

- (63) 가. 고객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H1] , [+H2]
Ismingiz nima? [+H1] , [-H2]
나. 고객님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H1] , [+H2]
Telefon raqamingiz nechi? [+H1] , [-H2]
다. 고객님의 예약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H1] , [+H2]
Buyurtma raqamingiz nechi? [+H1] , [-H2]

위의 (63) 예문을 보면 한국어에는 ‘어떻게 되십니까?’와 같이 높임의 어미인 ‘-시-’를 붙여서 질문할 수 있는데, 우즈베크어는 이 경우 높임의 표현이 한국어와 다르다. 즉 우즈베크어는 위와 같은 유형의 의문문에는 서술어에 ‘-lar’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주어에 2인칭 소유 어미인 ‘-ngiz’을 붙이는 것으로 높임을 표현한다.

이상의 사물 높임법에 관한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높임 표지 활용법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는 사물을 높일 때 서술어에 높임의 표지 ‘-시-’를 사용하여 [-H1] , [+H2] 의 형태로 높임을 표현하지만, 우즈베크어는 높임 표지 ‘-lar’나 2인칭 소유 어미 ‘-ngiz’가 사물의 어간에 직접 결합으로 [+H1] , [-H2] 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62, 63)에서처럼 우즈베크어 대응 문장의 경우 [-H1] , [-H2] 로 표현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학습 과정에서 오류를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1.4. 압존법 대조

압존법이란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이다. 아래의 (64, 가)와 같이 손자가 청자인 할아버지를 고려하여 자기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압존법’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화자와 주어의 관계에서는 ‘-시-’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청자를 고려하여 (64, 나)처럼 ‘-시-’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존법이라고 한다.

‘-시-’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표지인데, 아래의 (64)에 보이는 예문을 통하여 높임의 대상으로 청자를 먼저 고려하고 있는 문법 범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높임법이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압존법이나 가존법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언어 예절에서도 압존법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 (64) 가. 할아버지, 아버지 왔어요.(○) [-H1] , [-H2]
 나. 할아버지, 아버지 오셨어요.(○) [-H1] , [+H2]
 Bobo dadam keldilar. [-H1] , [+H2]

위의 (64) 예문처럼 아버지를 할아버지께 말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 왔어요.’와 같이 아버지는 높이지 않는 것이 한국어의 표준 화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도 점차 변하여 근래에는 아버지보다 윗분에게도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여 ‘할아버지, 아버지 오셨어요.’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보다 윗사람에게 높여 말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한편, 우즈베크어는 한국어처럼 압존법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 화자보다 청자가 나이가 많고 대화 속의 대상이 청자보다 나이가 어릴 때는 우즈베크어 예절에 따라 ‘-lar’을 붙여서 말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런 표현 방식으로 얘기할 때 화자에 대해 예의 바르다고 평가를 한다. 특히 청자가 나이가 많을 때는 화자는 예의에 맞는 단어를 골라서 사용하여 높임법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어에서는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생략하여 말할 수 있지만, 우즈베크어는 ‘-lar’을 갖추어 사용하는 것이 규범적인 표현이다.

압존법의 실현 양상은 가정과 직장이 다르다. 가정에서는 압존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는 아래의 예문에서처럼 무조건 높인다.

(65) 사장님이 김 부장 어디 있냐고 물어 왔을 때 상황.

- 가. 김철수 부장님 외출하셨습니다. [-H1] , [+H2]
 Bolim boshlig'i Bahodir Mirolimovich tashqariga chiqdilar
 나. 김철수 부장 외출하셨습니다. [-H1] , [+H2]
 Bahodir Mirolimovich tashqariga chiqdilar.
 다. 김철수 부장 외출했습니다. [-H1] , [-H2]

Bahodir Mirolimovich tashqariga chiqdi.

라. 김 부장님 외출하셨습니다. [-H1] , [+H2]

Bahodir Mirolimovich tashqariga chiqdilar.

마. 김 부장 외출하셨습니다. [-H1] , [+H2]

Bahodir Mirolimovich tashqariga chiqdilar.

바. 김 부장 외출했습니다. [-H1] , [-H2]

Bahodir Mirolimovich tashqariga chiqdilar.²⁶⁾ [-H1] , [+H2]

(65)의 예문을 통해 직장에서는 압존법으로 말할 때 듣는 사람이 누구든지 주체 높임 ‘-시-’를 사용하여 [+H2]와 같이 말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다. 즉 ‘[평사원이] 사장님, 김 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하고 말하지만,²⁷⁾ 청자를 고려하여 ‘-님’을 붙이지 않는 대신 ‘김 부장 외출하셨습니다.’라고 현실 언어에는 절충된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위의 (65)처럼 한국어의 여러 문장이 우즈베크어로는 한 가지 문장으로 대응한다. 이는 직장 예절에 따라 부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즈베크어에는 직위 호칭어로 부르는 것 보다, 높임의 대상을 (65)와 같이 성이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예의에 맞는 표현이다. 따라서 높임의 대상에 ‘-lar’을 넣어 [+H2]로 표현한다.

4.2. ‘-들’과 ‘-lar’의 대조

이 장에서는 한국어의 복수 표지 ‘-들’과 우즈베크어의 복수·높임 표지 ‘-lar’을 대조하고 유사성과 상이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의 ‘-들’의 두 가지 용법에 맞게 우즈베크어와 비교한다.

먼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수 표지 ‘들’과 ‘lar’을 개념적으로 대조하기 위

26) 우즈베크어에는 보통 직장 예절에는 직함으로 말하는 것보다 성함으로 말하는 것이 직장 예절에 맞다.

27) 국립국어연구원(1992), 『표준 화법 해설』, p.97.

해 표준 국어대사전을 통해 ‘-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따르면 문법적 조사와 보조사의 두 가지로 나뉜다. 따라서 복수 표시 ‘-들’²⁸⁾과 ‘-lar’²⁹⁾에 대한 대조는 조사와 보조사일 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4.2.1. 조사 기능 측면

4.2.1.1. 명사에 결합

한국어의 복수 표지는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의 뜻을 더하는 조사 역할을 한다. 우즈베크어의 복수 표시 접사는 ‘-lar’로 한국어의 ‘-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복수성의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명사와 결합할 때이다.

(66) 가. 학생이 왔다.

Talaba keldi.

명사	격조사		어간	시제	종결	
학생	-이	[-P1] [-H1]	오-	-았-	-다.	[-P2] [-H2]
Talaba	∅	[-P1] [-H1]	kel-		-di	[-P2] [-H2]

<표 26> 단수형 문장 분류

(67) 학생들이 왔다.

Talablar keldi.

28) 복수형 ‘들’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논의는 전영철(2004, 2007), 임홍빈(2000), 최동주(2000), 강범모(2007)를 참조할 수 있다.

29) 복수형 ‘-lar’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논의는 Tojiev Yo(1981), Hojiyeva H(2000), Zikrillaev G'(2000)등을 참조할 수 있다.

명사	복수	격조사	어간	시제	종결
학생	-들	-이	[+P1]	[-H1]	오- -았- -다. [-P2] [-H2]
Talaba	-lar	∅	[+P1]	[-H1]	kel- -di [-P2] [-H2]

<표 27> 복수형 문장 분류

(68) 선생님들이 왔다.

O'qituvchilar keldi.

명사	접사	복수	격조사	어간	시제	종결
선생	-님	-들	-이	[+P1]	[-H1]	오- -았- -다. [-P2] [-H2]
O'qituvchi	-∅	-lar	∅	[+P1]	[-H1]	kel- -di [-P2] [-H2]

<표 28> '-lar'의 복수 표현 문장 분류

위의 (67)과 (68)는 학생과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즉 학생은 높임의 대상은 아니지만,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다.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은 모두 유정명사³⁰⁾이기 때문에 복수 표지의 '-들'이 결합하기 쉽다.

우즈베크어에도 학생과 선생을 뜻하는 'Talaba', 'O'qituvhchi'가 모두 유정명사로 복수 표지 '-lar'가 결합한다.

위의 (66)은 복수 표지도 높임 표지도 결합하지 않는 일반 문장이다. 이 예문에서 우즈베크어에는 주격 조사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³¹⁾

한국어의 경우 (67, 68)와 같이 '-들'은 명사에 직접 또는 높임의 접사 뒤에 격조사보다 앞자리에 넣고 복수 의미를 나타내지만, 우즈베크어는 (67, 68)와 같이 복수 표지 '-lar'가 명사에 직접 붙고 소유격 조사보다 앞자리에서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는 사람과 사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은 사람 또는 사물 이름 뒤에 붙어 복수를 나타낸다. 그러나 우즈베크어는

30) 한국어에서 '-들'은 유정 명사 뒤에 결합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31) 우즈베크어에 주격조사의 역할을 하는 조사가 없다. 우즈베크어에는 주격조사는 무표지로 나타난다는 점이 언어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다.

복수 표지 '-lar'가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 뒤에 붙어 복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높임을 나타낼 때도 있다. 특히 높임을 표현할 때는 지칭어나 호칭어가 누구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lar'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69) 손님들이 온다.

가. Mehmonlar ketdi.

나. Mehmonlar ketdilar.

(70) 꽃들이 핀다.

가. Gulllar gulladi.

위의 (69, 70)에서는 두 나라의 언어 모두 복수 표지가 결합하여 복수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우즈베크어 문장 (69, 가)를 보면 명사에는 '-lar' 결합하고 서술어에는 '-lar'가 생략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사의 복수 의미로 인하여 문장에 복수 의미를 알 수 있다. 또는 한국어와 달리 (69, 나)와 같이 명사에서처럼 동사에서도 '-lar'가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즈베크어의 복수 표지 'lar'가 주어 사람이 의미하는 유정명사인 경우에만 서술어에 결합이 가능하다는 특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70)와 같이 명사 뒤에는 '-lar'가 붙이지만 주어가 무정 명사일 때는 서술어에 '-lar'를 붙이지 않는다.

(71) 삼촌들이 오셨다.

가. Amakilarim keldi.

나. Amakimlar keldi.

다. Amakilar keldi.

위의 (71) 한국어 예문에서는 복수 표지 '-들'이 결합하여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삼촌들'이라는 말에는 두 명 이상의 '삼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우즈베크어 (71, 가-다)에서도 복수 표지 '-lar'는 명사에 붙어 사용한다. '-lar'

는 체언의 소유격 조사 위치에 따라 단어의 의미도 달라진다. 즉 복수 표지로 사용될 경우는 명사 바로 뒤에 붙지만, 1인칭이나 2인칭 소유격 조사 뒤에 사용될 경우는 항상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71, 가)의 ‘-lar’는 복수 표지 의미를 나타내며, (71, 나)의 ‘-lar’는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결국 명사 뒤에 1, 2인칭 소유격 조사가 사용되고 그 뒤에 ‘-lar’가 붙으면 ‘-lar’는 항상 높임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71, 다)의 복수 표지는 명사에 바로 뒤에 붙어서 ‘-lar’가 복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71, 다)와 같이 소유격 조사가 없을 때는 복수 의미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유격 조사가 활용하지 않을 경우는 ‘-lar’는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2) 삼촌들이 오셨다.

Amakilari keldi.

고유명사가 화자와 청자에 속하지 않고, 제3자에 속할 때는 제3자의 나이,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위의 (72)을 보면 3인칭 소유격 조사가 ‘-lar’ 뒤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화자가 한 사람을 지적하여 말할 때는 높임을 나타내고 여러 사람을 지적할 때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

(73) 삼촌들께서 오셨다.

Amakimlar kelishdilar.

명사	소유격	복수	높임	어간	어미	시제	종결
Amaki	-m	-lar	∅ [+P1] [-H1]	kel-	-ish	-di.	-lar [+P2] [+H2]

<표 29> ‘-lar’의 높임 표현 문장 분류

위의 (73)은 복수 표지 ‘-들’과 높임의 ‘-께서’가 같이 명사에 결합한 예문이다.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는 명사, 소유격 조사, 높임 표지 ‘-lar’의 순서대로 결합 되고, 이 경우 명사가 복수임을 서술어에 결합 된 공동 표지 ‘-ish’를 사용해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복수 표지 ‘-들’과 ‘-lar’가 명사에 결합할 때의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들’이 사물이나 사람 이름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낼 때는 우즈베크어 ‘-lar’와 유사한 점이 있었지만, 한국어의 높임 표지 ‘께서’와 우즈베크어 ‘-lar’는 직접 결합할 수 있는 대상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lar’는 명사에 직접 결합하여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명사와 복수 표지 사이에 소유격 조사를 넣으면 높임을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수 접미사 사용과 관련한 차이점으로 양국의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2.1.2. 대명사에 결합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뉘는데, 인칭 대명사는 ‘저, 너, 우리, 너희, 자네, 누구’ 단위이고, 지시 대명사는 ‘거기, 무엇, 그것, 이것, 저기’ 등 따위이다. 우즈베크어는 높임을 나타낼 때 인칭 대명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인칭 대명사는 1인칭 대명사는 화자를, 2인칭 대명사는 청자를, 3인칭 대명사는 제3자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단수형 대명사에는 men, sen, u 등이 있고, 복수형 대명사에는 biz, siz, ular 등이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복수형 대명사가 단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명사의 복수 표지는 명사의 복수 표지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지만, 사용법은 규칙적이다. 즉 ‘너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라는 복수 표지가 결합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복수 표지 ‘-들’과 결합이 가능하다. 반면에 1인칭 단수 대명사에는 ‘-들’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는 1인칭 단수 대명사 ‘저’와 복수 대명사 ‘저희’는 겸손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우즈베크어의 복수형 biz는 단수형 men 의미로 쓰일 때 겸손의 의미를 나타낸다. 1인칭 단수형은 접사 ‘-lar’와 결합하지 않으며, 2인칭 단수 sen이 접사 ‘-lar’와

결합하면 일반적으로 청자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나 가족 관계라는 편안한 느낌을 나타내기도 한다. 1인칭과 2인칭 복수 대명사(biz, siz)에 접사 ‘-lar’가 붙으면 화자와 청자가 복수형이 아니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화자 한 명과 그 외 사람들을, 혹은 청자 한 명과 그 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3인칭 단수 대명사는 제3자만을 의미하고 복수 대명사는 여러 사람을 의미한다.

- (74) 가. 그들이 어디서 공부해? [+P1] , [-H1] , [-P2] , [-H2]
 Ular qayerda o’qiydi. [+P1] , [-H1] , [-P2] , [-H2]
 나. 너희들이 왜 왔어? [+P1] , [-H1] , [-P2] , [-H2]
 Senlar nega keldinglar? [+P1] , [-H1] , [+P2] , [-H2]

대명사는 명사 대신에 쓰이고, 명사는 누구를 지시하는지 혹은 무슨 인칭인지를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74)은 복수 표지 ‘-들’이 인칭 대명사에 결합 되어 3인칭의 복수를 표현하고 있다. (74, 가-나)에는 우즈베크어 문장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 (74, 가)의 ‘ular’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3인칭 대명사의 복수임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화자의 태도에 따라 제삼자 한 명을 가리키면서 높임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74, 나)의 ‘sen’ 대명사는 접사 ‘-lar’와 같이 결합할 때 청자 및 다른 개인에 대한 가족적인 태도 또는 청자에 대한 약간의 차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74, 나)의 ‘senlar’는 2인칭 낮춤 복수를 나타내고, 높임 2인칭 복수를 나타낼 때는 ‘siz’ 또는 ‘sizlar’ 대명사를 활용한다. 한국어에는 2인칭 높임 대명사 ‘당신’이란 대명사가 있지만 자주 활용하지 않지만, 우즈베크어에서 상대를 높일 때 사용하는 ‘siz’ 대명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며 대화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즈베크어는 ‘-lar’가 3인칭 단수 대명사인 ‘u’에 붙어 존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 (75) 가. U keldi.(u(3인칭 대명사)+온다.) [-P1] , [-H1] , [-P2] , [-H2]
 나. Ular keldilar.(u(3인칭 단수 대명사)+lar+오신다.) [-P1] , [+H1] , [-P2] , [+H2]

위의 (75, 가)의 예문 ‘U keldi.(그는 온다)’는 복수의 의미나 존대의 의미가 없는 단수형 문장이다. (75, 나)의 예문 ‘ular keldilar.’는 화자가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접사 ‘-lar’가 존대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이 경우 존대를 표현할 때 접사 ‘-lar’는 복수 의미를 잃게 된다.

(76) 가. ?그것들(이것들, 저것들) 잘 지켜보라. (사물 지시)

u narsalar(bu narsalar, ana u narsalar)ni yaxshlab qara.

나. *거기들(여기들, 저기들) 삼각산이다. (처소 지시)

u yerlar(bu yerlar, ana u yerlar samkak tog'i.

위의 (76)의 예문을 보면 한국어의 경우 같은 대명사라도 사물 표시의 지시 대명사는 ‘-들’의 쓰임이 혼하지 않으며, 처소 표시의 지시 대명사는 ‘-들’과 결합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우즈베크어는 사물 지시와 처소 지시의 지시 대명사에 ‘-lar’의 결합이 자연스러우며 이 경우에는 복수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상으로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수 표지 대명사의 결합과 의미를 대조하여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칭 대명사 경우 1인칭 단수는 복수 표지와 결합할 수 없으나, 2인칭 단수 또는 복수는 복수 표지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2인칭 높임 대명사는 사용 범위가 좁았지만, 우즈베크어의 2인칭 높임 대명사는 상대를 높일 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차이는 학습자들의 혼란을 유발하여 많은 오류를 보이는 부분이다.

3인칭의 경우에는 한국어의 ‘-들’은 복수를 표현하고, 우즈베크어의 ‘-lar’는 복수뿐만 아니라 높임의 의미도 함께 표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 외 지시 대명사에도 양쪽 언어의 활용에서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2.2. 보조사 기능 측면

복수 표지가 조사로써 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역할을 한다. 아래의 (77)와 같이 예를 들어보면,

(77) 가. (여러분(-들)! 너무(-들) 빨리(-들) 가지지(-들) 마시고(-들) 같이(-들)
갑시다(-들).)

나. Aziz(-lar ✓)! juda(-lar ×) tez(-lar ×) ketmasdan(-lar ×) birga(-lar ×)
ketaylik(-lar ×)

의의 (77, 나)는 (77, 가)의 한국어를 우즈베크어로 옮긴 것이다. 여기서 우즈베크어 복수 표지 ‘-lar’는 모든 문장 성분과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즈베크어의 복수 표지 ‘-lar’는 한국어 복수 표지 ‘-들’과 결합 위치와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에 표현된 복수 표지는 다른 요소, 즉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어, 조사, 어미,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문장과도 결합할 수 있다. 앞장에서 체언과의 결합을 살펴보았으며, 여기서는 ‘-들’과 ‘-lar’의 부사어, 조사, 어미, 합성 동사 등의 선행 요소와 문장에 결합 여부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4.2.2.1. 부사어에 결합

부사어는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장 성분이다. 부사와 부사의 구실을 하는 단어·어절·관용어, 그리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이며, 형용사가 어미 ‘-게’ 따위로 활용한 말이다. 부사성 의존 명사구 따위가 있다. 한국어의 복수 표지 ‘-들’은 부사어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78) 가. 많이들 먹었습니까?

Ko'p~~Ø~~ yedingizlar~~mi~~?

나. 빨리~~들~~ 오세요.

Tez~~Ø~~ kelinglar.

위의 (78, 가)는 부사와 복수 표지 '-들'과 결합된 문장으로 모두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문제는 (78, 가)의 문장이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다. 즉, '-들'은 '많이', '빨리' 또는 '왜'의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이 실제로 이 문장에서 복수 의미를 갖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78, 가)에서 복수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표지 '-들'이 결합된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들'이 직접 결합된 복수의 요소가 아니라 관련성의 의미를 갖게 된다.

(78, 나)의 우즈베크어 대응 문장에서는 부사에 '-lar'가 나타나면 올바른 문장 아니며, '-lar'는 서술어에 실현되어 복수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복수 표지 '-들'과 '-lar'는 부사어에 결합할 때 큰 차이점을 나타낸다.

4.2.2.2. 연결 어미에 결합

연결 어미는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한다. 연결 어미에는 '-게', '-고', '-(으)며', '-(으)면', '-(으)니', '-아/어', '-지' 따위가 있으며, 한국어의 복수 표지 '-들'은 연결 어미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우즈베크어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79) 밥은 먹고~~들~~ 다니니?

Ovqatni yeb~~Ø~~ yuribsanmi?

위의 (79)은 복수 표지 '-들'이 연결 어미와 결합한 문장이다. 한국어의 '-들'이 연결 어미와 결합하는 것과 달리 우즈베크어는 연결 어미에 복수 표지 '-lar'가

결합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4.2.2.3.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합성 동사는 둘 이상의 말이 결합된 동사이다. 예를 들어 ‘본받다’, ‘앞서다’, ‘들어간다’, ‘가로막다’ 따위가 있다.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은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와 결합 가능하다.

(80) 그 소식을 듣고 좋아들 하세요.

Bu habarni eshitib yaxshiØ ko'rishadilar.

위의 (80)은 합성 동사에 선행 요소 ‘-들’이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낸 예문이다. 우즈베크어는 합성 동사에 선행 요소의 결합이 불가능하며 후행 요소에 결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즉 우즈베크어의 문장에서 행동의 복수 역할은 공동 표지 ‘-ish’가 하고, ‘-lar’는 높임의 표현을 하고 있다.

4.2.2.4. 문장에 결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이다.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 이런 것이 생략될 수도 있다. 한국어의 복수 표지 ‘-들’은 문장과도 결합이 가능하다.

(81). 숙제 해 왔어요들 ?

Uyga vazifani qilib keldingizlarmi?

위의 (81)은 복수 표지 ‘-들’이 ‘숙제해 왔어요’라는 문장에 결합한 것이다. 의

미적으로 볼 때, (81)은 복수의 청자에게 묻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문장 속의 복수 표지 ‘-들’은 복수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의 ‘-lar’도 문장과 결합 가능하며, 복수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화자 의도에 따라 높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상으로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수 표지 보조사로써 의미와 기능을 대조하여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보았으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사에와 우즈베크어 ‘-lar’는 서로 결합이 불가능하며, 복수를 나타낼 때는 서술어와 결합하여 실현된다.

다음으로 한국어 ‘-들’은 연결 어미에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우즈베크어 ‘-lar’는 결합할 수 없다. 한국어에는 ‘-들’이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에 붙여서 복수를 표현하지만, 우즈베크어의 ‘-lar’는 합성 동사의 후행 요소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문장과의 결합은 ‘-들’과 ‘-lar’의 위치는 같다. 하지만 우즈베크어에서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lar’가 복수 또는 높임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어의 ‘-들’은 복수만 표현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복수 표지 ‘-들’과 높임 표지 ‘-시-’ 그리고 우즈베크어 복수·높임 표지 ‘-lar’의 의미 기능과 표현 구조를 살펴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논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한국어 선어말어미 ‘-시-’와 복수 접사 ‘-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와 ‘-들’의 의미 기능, 그리고 특수한 용법을 정리하였다. 국립국어원의 표준 언어 예절을 통해 ‘-시-’가 표준 언어 예절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사용례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고찰하여 각각의 주체 높임, 간접 높임, 사물 높임, 압존법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복수 표지 ‘-들’의 조사와 보조사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 설명에서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우즈베크어 복수 높임 표지 ‘-lar’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고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문장들을 예로 들어 높임과 복수 의미를 분석하였다. ‘-lar’의 언어학에서의 제시 순서와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과 예문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복수인지 아니면 높임인지 그리고 체언과 용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시-’와 ‘-lar’를 표준 언어 예절에 따라 각각의 사용법을 비교하여, ‘-들’과 ‘-lar’가 조사와 보조사일 때 나타내는 의미를 대조 분석하였으며, 대조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와 ‘-lar’의 사용법을 표준 언어 예절에 따라 주체 높임, 간접 높임, 사물 높임, 압존법 측면에서 서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 수 있다.

주체 높임 측면에서는 ‘-시-’는 서술어 어간에 붙어 주체의 주어를 높이는 [+H2] 역할을 한다. ‘-께서’는 주어에 결합하여 [+H1] 를 역할을 한다. ‘-lar’는 주어, 서술어에 붙어 주어 또는 주어에 관한 사물이나 동작의 높임을 표현한다. ‘-시-’는 선어말어미로써 서술어에 어간에 직접 결합한다. 주어에 소유격 조사 뒤 ‘-lar’는 붙여 [+H1] 되고, 서술어에 인칭 소유격 어미 뒤에 ‘-lar’가 결합하여 [+H2] 가 된다.

한국어의 간접 높임이 주어에 관한 사물을 높여 문장의 서술어에 ‘-시-’붙여서 [+H2] 로 활용한다. 우즈베크어의 간접 높임에는 ‘-lar’가 서술어보다 주어에 관한 사물을 뜻하는 단어에 붙고 [+H1] 로 활용된다. 우즈베크어 간접 높임에는 인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물이 1인칭에 속할 때 높임의 의미가 없으며, 2인칭에 속할 때는 2인칭 복수 소유격 어미 ‘-ngiz’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미를 표현한다. 사물이 3인칭에 속한 경우에는 3인칭 소유격 복수 어미 ‘-lar’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미를 표현한다.

사물 높임법에서 한국어는 사물을 높일 때 서술어에 높임의 표지 ‘-시-’를 넣어 [-H1] , [+H2] 로 표현된다. 그러나 우즈베크어는 높임 표지 ‘-lar’나 2인칭 소유 어미 ‘-ngiz’를 어간에 직접 결합하여 [+H1] , [-H2] 를 나타낸다.

둘째, 복수 표지 ‘-들’과 ‘-lar’을 조사 및 보조사 측면으로 대조하며 문법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봤다.

‘-들’은 사물이나 사람 이름에 결합하여 복수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lar’와 유사성이 있지만, 높임 표지 ‘께서’가 ‘-들’에 직접 결합할 수 있는 반면 ‘-lar’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복수 표지 대명사의 결합과 의미 대조에서는 인칭 대명사 1인칭 단수와 복수 표지는 서로 결합할 수 없지만, 2인칭 단수 또는 복수는 복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어의 2인칭 높임 대명사는 활용 범위가 좁지만, 우즈베크어의 2인칭 높임 대명사는 일상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학습자가 제일 많이 오류를 겪는다. 3인칭 경우에는 ‘들’이 복수를 표현하고 ‘-lar’는 복수· 높임을 모두 표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복수 표지 보조사로써 의미와 기능을 대조에서는 부사어와 ‘-lar’는 서로 결합이 불가능하고 복수를 나타낼 때는 서술어와 결합하여 표현한다. 한국어의 ‘-들’은 연결 미에 결합할 수 있으나 ‘-lar’는 결합할 수 없다. 한국어에는 ‘-들’이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에 붙여서 복수를 표현하는데 우즈베크어의 ‘-lar’는 합성 동사의 후행 요소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낸다. 문장에 결합은 ‘-들’과 ‘-lar’의 위치는 같다. 하지만 화자의 의도에 따라 ‘-lar’는 복수 또는 높임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간의 ‘복수’와 ‘높임’의 접사 사용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양국의 학습자들이 상이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학습 과정에서 오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양국의 언어를 학습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대조 언어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의 ‘-시-’, ‘-들’과 우즈베크어의 ‘-lar’의 의미 기능을 재정리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결과를 근거한 것으로,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복수나 높임 표지에 나타나는 오류 양상에 대한 검증이 빠져있다. 이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추후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 강범모(2007), “복수성과 복수 표지: ‘들’을 중심으로”, 『언어학』 47, 한국언어학회.
- 고영근(1974), “현대국어의 준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 서울대어학연구소.
- 국립국어연구원(2011), “표준 언어 예절”,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2), “표준 화법 해설”, 국립국어연구원.
- 김경열(2020), “복수 표지 ‘들’의 문법적 지위 고찰”, 영주어문학회.
- 김영희(1985), “주어 올리기”, 『국어학』 14, 국어학회.
- 남기심·고영근(2011), “표준국어문법론”, 제3판, 탑출판사.
- 박석준(2004), “선어말어미 ‘-시-’의 분범외적 용법에 관하여”, 『한말연구』, 14, 한말연구학회
- 박석준(2002), “현대국어 선어말어미 ‘-시-’에 대한 연구 - 의미·기능, 관련 구문의 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양규(1975), “존칭체언의 통사론적 특징”, 『진단학보』, 40, 진단학회.
-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옥정미(2000), “현대국어 복수 표지 ‘들’의 연구”, 아주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유동석(1993), “주체높임법 [-시-] 에 대한 통사론적 연구”, 『언어연구』, 부산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 이래호(2012), “선어말어미 ‘-시-’의 청자 존대 기능에 대한 고찰”, 『언어학연구』, 한국중원언어학회.
- 이정복(2006), “국어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국어학회』 47, 국어학회.
- 이정복(2010), “상황 주체 높임 ‘-시-’의 확산과 배경”, 대구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 이정택(2016), “압존법 관련 규정과 언어 현실”,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임동훈(2000),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태학사.
- 임홍빈(2000), “학교 문법, 표준 문법, 규범 문법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 임홍빈(1976), “존대·겸양의 통사 절차”, 『문법연구』.
- 임홍빈(1985), “-시-와 경험주 상정의 시점”, 『국어학』 14, 국어학회.

- 임흥빈(1990), “존경법,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전영철(2004, 2007),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 .
- 최동주(2000), “-들’ 삽입 현상에 대한 고찰”, 『국어학』 .
- 최미경(2004), “복수 표지 ‘들’의 범주”, 『전통어문연구』 15,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최형강(2005), “보조사 ‘들’의 특성 연구”, 『어문학』 87, 한국어문학회.
- 표준 국어대사전(1999), 두산동아.
- 허용·김선정(2018), 『대조언어학』, 소통.
- A.Gulomov(1944), “우즈베크어의 복수 범주”, 타슈켄트 Uzdavnashr.
- G'.Zikrillaev(1994), “우즈베크어의 형태학”, 부하라.
- H.Hojieva(2000), “인칭대명사의 존대 의미 우즈베크어 문학”, 타슈켄트.
- A.Hojiev(1974), “우즈베크어로 된 동의어 설명 사전”. - 타슈켄트, 교사.
- A.Hojiev(1989), “우즈베크어로 단어 형성”, 타슈켄트, 교사.
- A.Hojiev(2002), “언어 용어의 설명 사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국립백과사전.
- Juraev (2018),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문법 요소에 대응에 관한 연구, 격조사 대조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 F.Abdullaev(1961), “소유격 및 대소문자 접미사의 기원에 대한 질문, 우즈베크어 및 문학에 관한 질문”. - 타슈켄트.
- M.Hamroev(2007), “모국어”, 타슈켄트.
- K.Nazarov(1963), “우즈베크 민속 방언의 소유 접미사, 문헌학 후보자”, 타슈켄트.
- S.Usmonov(1963), “단어 형성 접사, 우즈베크어 및 문학”, 타슈켄트.
- Sh.Rahmatov (1973), “존대 형상 우즈베크어 문학”, 타슈켄트.
- Sh.Shoabdurahmonov(1980), “Hozirgi o'zbek adabiy tili(현대 우즈베크 표준어)”, 타슈켄트.
- Sh. Rahmatullaev(1986), “어휘 및 구의 의미에 대한 구성 요소 분석의 일부 결과, 우즈베크어 및 문학”, 타슈켄트.
- Yo.Tojiev(1981), “우즈베크어의 접사 동의어”, 타슈켄트, 타슈켄트 국립 대학교.
- R.Ikromova(1985). “우즈베크어로 된 말의 합성, 분석 및 기능적 형태”, 타슈켄트.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of Korean and Uzbek plural and honorific structures: focusing on '-들', '-시-' and '-lar'-

Mirolim Absalomov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Hwan B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honorific' expressions and 'plural' expressions in Korean and Uzbek. By selecting a Korean honorific sign '-시-' and a plural sign '-들' as representative morphemes, we would like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rresponding Uzbek word '-lar', and discuss the relationship of honorific and plural expressions between the two languages based on the results.

In Korean, '-시-' represents the meaning of honorific, and '-들' represents the meanings of plural. However, in the case of Uzbek, there is only one morpheme such as '-lar' corresponding to each of the '-시-' and '-들' in Korean, and it represents the meaning of honorific '-시-' and plural '-들'. Therefore, the sign '-lar' in Uzbek has both the meaning of 'honorific' and 'plural'.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pecificity of Uzbek '-lar' can be confirmed in that each morpheme has a different semantic function.

The semantic functions of '-시-' and '-들' and special uses were summarized for the Korean word ending '-시-' and the plural sign '-들'.

Through the standard language etiquett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시-' was contemplated how it had been explained according to the

standard language etiquette, how the usage cases had been developed, and examined in terms of subject honorific(주체 높임), indirect honorific(간접 높임), object honorific(사물 높임), and apjonbeop(압존법). In addition, the use of the plural sign '-들' as postposition and auxiliary postpositional particle were searched, and were examined the functions and meanings in the description of the us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Uzbek honorific and plural sign '-lar' were examined, and was analyzed using example sentences that are often used in everyday life . It presented what the order and pattern of presentation is in linguistics of '-lar', whether the meaning of expression in explanations and examples is plural or honorific, and how it is being conjugated in substantive (체언) and predicate(용언).

Finally, the way of using '-시-' and '-lar' were compared according to standard language etiquette, and the meaning of '-들' and '-lar' in the case of postposition and auxiliary postpositional particle was compared and analyzed, and the results of the contrast analysis were summarized.

Last but not least, the research is thought to be of some significance in terms of reducing the errors of Uzbek learners learning Korean and Korean learners learning Uzbek.